

아주대학교의료원소식

2004

통권 제 117호 / 발행일 2004. 10. 1 / 발행인 겸 편집인 김孝皙 / 발행처 아주대학교의료원 홍보팀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산 5 (443-721) 전 화 (031) 219-5114

· 목 차 ·

- 2 포커스
세포치료센터 개소
- 4 진료교실
보청기를 대신하는 인공와우
- 5 선인재 칼럼
의료원의 비전과 의학 연구
- 6 Zoom & Zoom
희귀질환자와 그 가족들의 영원한
대모, 김현주 교수
- 10 유명인과 질병 마티스
- 11 AMC NEWS
- 16 건강 Q & A
- 갑상선기능항진증 수술 후 재발
- 전립선염과 만성골반통증후군
- 18 의료원 10주년 행사
- 22 특별기고
아주대학교의료원 신 HIS 구축 사업
- 24 우리 병원 어떨습니까
간호사님의 주시는 하나도 안팎어요!
- 25 교황학생 체험기
참된 의사의 모습을 배웠어요
- 26 장기이식은 사랑입니다
투석환자를 위한 신장이식 설명회 개최
- 27 협력병원 탐방 안성성모병원
- 28 의료원발전 후원내역
- 30 전문클리닉 소식
- 31 진료시간표

우리의 약속을 소중히 지켜가겠습니다



AJOU



아주대학교의료원은 10주년 기념식에서 우리의 약속과 비전, 핵심가치를 선포하고 이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을 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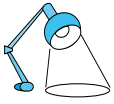
「우리는 2,500여 명의 교직원으로 구성된 커다란 공동체 속의 다양성을 가지고 있으며 동시에 구성원들은 윤리성을 바탕으로 환자중심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공동목적을 위하여 헌신하고자 합니다. 이 목적을 달성하는데 우리의 창의적 역동성을 원동력으로 교육, 연구, 진료, 사회봉사 분야에서 탁월성을 이루고자 하는 우리 가치를 공유합니다. 이러한 핵심가치를 바탕으로 우리의 사명을 다하려 합니다.」

이제, 교직원 가슴 마다 아름다운 결실을 꿈꾸며 새로운 소망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여러분, 10년 후 이 씨앗이 성장한 모습을 기대해 주십시오.

지역사회와 함께 밝은 미래를 공유하고 인류의 건강과 세계 의학 발전을 선도하는 의료기관으로 참되게 성장할 아주대학교의료원을 ...





산·학·관 합동으로 설립된 세포치료센터, 난치병

아주대학교의료원은 지난 9월6일 줄기세포를 이용한 세포치료제 개발 및 난치·불치병 환자 치료를 위한 의료원, 수원시, 코오롱이 대규모 연구자금을 공동으로 투입하는 산·학·관 협력의 세포치료센터를 개소했다.

아주대학교의료원 세포치료센터(Cell Therapy Center)는 세포치료에 대한 연구와 연구 인력의 양성과 교육을 통하여 지금까지 치료가 불가능했던 다양한 질환에 대해 세포를 이용한 치료법을 도입하고자 설립되었다. 세포치료센터는 학내에서는 세포치료제 개발에 대한 연구와 교육을 담당하며, 대외적으로는 경기도 바이오센터의 여러 벤처회사에서 개발된 약제와 세포에 대한 전임상 시험을 하는 세포개발 및 시험 센터와 연계하게 된다. 나아가 임상적 안전성과 효과를 확인하는 연구임상센터와 대량생산 공정과 플랜트를 개발하여 상용화를 추진하고자 하는 세포치료개발의 산업화 cluster의 핵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여 의료 뿐만 아니라 경제를 포함하는 총체적 사회복지를 실현하고자 한다.

세포치료는 현재는 자가 줄기세포와 분화된 성숙세포를 이용하여 시도되고 있지만 유전자 결함이 있는 경우와 그 외에 이유로 자가 세포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타가 또는 이종 세포의 사용도 연구될 것이다. 세포치료의 적용범위는 외상성, 혈관성 그리고 선천성으로 야기되는 심

혈관 질환, 전반적인 뇌척수 신경 손상 및 퇴행성 신경질환을 비롯하여, 암을 포함하여 간, 심장, 혈관 또는 근육 등의 인체의 모든 선천성 및 후천성 불치 질환이 대상이며, 이 중에서 실험실 및 임상 연구를 통하여 적절한 치료범위가 결정될 예정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학내에서 세포 기능, 세포 사멸, 세포 유전자 발현, 세포 분화 등의 세포에 대한 여러 연구 전문 교수들과 이를 임상에 이용하고자하는 각과의 임상 전문 교수들의 창의적이며 협동적인 연구가 추진될 것이다. 여러 기초와 임상 교수들은 세계적 수준의 대규모 장비가 있는 바이오센터에 직접 참여하여 연구를 하거나 또는 공동연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연구의 효율과 수준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러한 기초와 임상의 유기적인 연구조직은 경기도 연구단지내의 바이오 벤처에서 연구 생산되는 여러 약제와 세포에 대한 전임상시험을 하는 세포산업기반기술 지원 센터의 역할과도 연계하여 전임상에서 효과가 증명된 신약에 대해서 식품의약품안전청의 규정에 따른

세포치료 역사

난치병의 유일한 해결책으로 떠오른 줄기세포 재생의학

재생불량성 빈혈환자 정맥 골수이식이 세포치료의 시작

사람의 배아줄기세포가 최근에 배양되기 시작하면서, 의학계에서는 줄기세포를 이용한 재생의학에 대한 연구가 활기를 띠고 있다. 줄기세포란 모체에서 태아가 자랄 때 필요한 세포를 공급해주는 세포로서, 출생 후에도 장기에 남아서 지속적으로 세포를 보충해주며, 장기가 조직이 손상되면, 부족한 세포로 분화하여 우리의 몸을 재생시키는 역할을 한다. 줄기세포는 시기에 따라 수정란에 해당하는 만능 줄기세포, 만능 줄기세포들이 계속 분열해 만들어지는 배아 줄기세포, 출생 후에도 발견되는 다능 줄기세포인 성체 줄기세포로 분류한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만능 줄기세포인 수정란은 자궁에 착상시키면 태아로 자랄 수 있지만(바로 인공수정에 해당한다), 배아줄기세포는 태아로 자라지 못하고 기형종양으로 자궁에 남아있게 된다. 이러한 줄기세포는 훼손된 장기를 근원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자료로서 현재까지 인류가 당면한 질병의 대부분과 당뇨병, 각종 암, 파킨슨병, 알츠하이머병, 척수손상 등의 난치병도 치료할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으로 제시되었다. 따라서 줄기세포에 관한 연구는 의학계의 전략적 산업분야로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으며, 이를 둘러싼 학계, 산업계의 경쟁도 매우 치열하다.

세포치료연구의 기반이 된 골수이식 연구경험

줄기세포를 포함한 세포치료에 대한 역사는 거의 일세기를 거슬러 올라간다. 1912년 독일에서 갑상선기능부전 어린이에게 갑상선세포를 이식한 것이 최초의 기록이나 1939년 Osgood가 ABO혈액형이 일치하는 골수를 재생불량성 빈혈환자의 정맥에 주입한 것이 사실상 치료의 시작이라 할 수 있다. 1958년에 Dausset박사가 HLA(인체조직적합성항원) 발견함으로써 이식 후 면역거부반응에 대한 이해가 깊어졌다. 1968년 미국에서 중증복합성면역결핍증환자에게 형제간 골수이식에 성공하였으며, 1973년에는 최초로 비혈연 간 골수이식에 성공하였다. 이후 임상연구가 거듭되고 1980년 말에는 골수이식이 혈액종양을 치료하는 방법으로 보편화되기 시작하였다. 골수이식에서 얻은 줄기세포에 관한 연구경험은 다른 조직의 세포치료연구의 바탕이 되어왔다.

1998년 배아줄기세포 분리·배양으로 가속화

퇴행성신경질환 중 중뇌의 도파민성 신경세포의 사멸로 야기되는 파킨슨씨병이 주 연구대상이 되어왔는데, 그 이유는 뇌의 특성에도 불구하고 파킨슨씨병의 경우 태아의 중뇌조직을 이식하면 치료가능성이 있

치료에 나섰다

구체적인 임상적 안전성과 효과를 확인하는 연구임상센터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자 한다. 결과적으로, 벤처기업에서 개발된 신약이 전임상 실험을 거쳐 임상적으로 검증되는 일관성 있는 신약 개발의 모든 단계를 총망라하는 세포치료개발의 cluster가 될 것이다. 또한, 이러한 연구결과를 실용 및 상용화하기 위해서 이에 필요한 국내의 여러 대학과 연구소에 있는 전문 연구진이 참여하는 다학제간 연구를 통하여 계량방법을 개발하고 이에 따른 안전성 및 독성 시험을 바탕으로 대량 생산용 플랜트와 공정을 개발하여 신약으로서의 실용화를 이룩하여 더 많은 환자가 쉽게 치료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 따라서 세포치료센터는 연구와 임상실험을 담당함으로써 경기도 연구센터내의 세포산업기반 기술 지원 센터의 전임상연구와 같이 세포치료개발의 cluster를 이룩하는 물론이며, 상용화에 필요한 플랜트 공정 개발까지 완성하여 국가적 연구 및 경제적 생산 단지로서 역할을 도모하며, 세계적으로는 세포치료를 포함한 신약 개발과 생산 및 수출의 총체적인 동북아 의료 허브가 되고자 한다.

이주대학교의료원 세포치료센터는 세포 개발부터 세포배양, 세포의

안정성과 평가, 이식방법 개발, 이식법의 개량화, 그리고 이식 후 효과 판정까지의 각 연구 기능이 유기적으로 연관되어 일관된 목표인 세포 치료를 이루면서도 여러 가지 질환에 응용될 수 있기 때문에 임상과 기초 그리고 다학제간의 연구가 고도로 연계되어 연구와 치료가 통합되는 다면적 연구치료센터로서 조직과 규모에서 세계 최초로 세포치료라는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며, 신약 개발부터 상용까지의 총체적인 개발과정을 일원화하여 연구개발 뿐만 아니라 상용화 단계로서 동북아 의제약계의 새로운 허브가 되고자 한다. 이러한 통합된 체제와 연계성을 바탕으로 의료의 산업적 측면에서의 발전이 동시에 도모되어, 국내 의료산업의 양적 질적 향상과 세계화를 통하여 궁극적으로는 인류 복지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한다.



민 병 현 소장 / 세포치료센터

다는 사실이 1979년의 동물연구에서 입증되었기 때문이다. 1987년 스웨덴에서 파킨슨씨병 환자의 뇌에 태아의 뇌세포를 이식하여 병을 치료하였으며, 그 경우 이식한 세포가 10년 이상 생존하면서 지속적인 효과를 나타내었다. 이를 계기로 미국 등을 포함한 4개국에서 태아의 뇌조직을 이식하는 기술이 행해졌지만 그 효과가 당초의 예상보다는 낮았는데, 그 이유는 이식에 사용하였던 태아의 뇌조직의 상태가 환자마다 큰 차이가 있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효과적인 치료를 위해서는 기능을 갖춘 표준화된 세포를 사용해야 하는데, 이러한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는 세포로는 바로 균질한 상태에서 대량으로 얻을 수 있는 줄기세포가 해당된다. 1998년에 Thomson과 Gearhart가 각각 사람의 배아줄기세포를 분리하고, 배양하는데 성공함으로써 세포의 표준화 가능성을 제시하였고, 그로 인하여 세포치료연구가 가속화되기 시작하였다. 그 외에 비록 줄기세포는 아니지만 우리 몸에 침입한 병원균을 인식하는 기능을 지닌 수지상세포를 암환자에게 이식하여 암에 대한 면역력을 증가시킴으로써, 암을 치료하는 기술이 개발되었고 현재 임상연구가 국내외적으로 한창 진행되고 있다.

미래 보건복지를 위한 세포치료술

우리 사회가 급격히 고령화되어 감에 따라, 세포치료의 대상이 되는

난치성 질병과 암을 앓고 있는 환자와 그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천문학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향후 수년간 세포치료기술이 형성할 시장규모만 해도 최소 50억 달러 이상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 유럽, 일본 등 선진 각국은 세포치료기술을 의학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줄기세포연구에 전력을 쏟고 있다. 이미 각국에서는 줄기세포의 상업적 이용을 목적으로 한 기업들이 속속 설립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벤처기업을 중심으로 산업화를 모색하고 있다. 우리나라 정부도 2002년부터 대형 국책사업을 통하여 이 분야의 연구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이제 세포치료기술은 우리 국민의 보건복지를 위한 선택과제가 아니라, 국가의 미래가 걸린 차세대 동력산업으로 발돋움하고 있다.



서 해 영 교수 / 해부학교실



보청기를 대신하는 인공와우



눈이 나빠지면 안경을 쓴다. 귀가 나빠지면 보청기를 쓴다. 안경처럼 일반
눈화되지는 않았지만 청력이 나빠지면 의례 보청기를 찾기 마련이다. 노인이 되면 누구나 시력이 떨어지는 것처럼 청력이 나빠질 수 밖에 없다. 또한 중이염의 환자의 경우에서는 양측 청력이 나빠진 경우가 있어 보청기를 찾게 된다. 질병이나 돌발성 난청으로 청력을 잃은 경우도 보청기를 찾게 된다.

보청기가 이렇게 나빠진 청력을 개선시켜 주는 것임에는 틀림이 없다. 하지만 아무리 최신의 것으로, 가장 비싼 것으로 보청기를 바꾸더라도 청력개선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 보청기는 버릴 수도 낄 수도 없는 귀찮은 물건이 되고 만다.

보청기가 그 효력을 잃은 경우 많은 노인과 환자들은 절망하게 된다. 즉, 소리 없는 세상을 살면서 병과 나이를 한탄할 뿐이다. 하지만 청기가 소리의 마지막 희망인줄 알았던 세상에서 이제는 인공와우가 새로운 희망이 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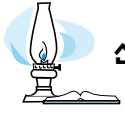
인공와우는 손상된 청각세포를 대신할 수 있는 전극을 귀 달팽이관에 심어서 들을 수 있도록 하는 장치이다. 20여년 전 개발되어 국내에서도 수년전부터 시술되어온 인공와우술은 고도난청으로 태어난 신생아의 기적과 같은 청력개선술로 주로 사용되어 왔다. 마찬가지로 성인의 고도 난청에서도 인공와우를 사용할 수 있지만, 아직 인공와우 장치의 고가로 말미암아 크게 일반화 되고 있지 않은 국내 실정이다.

미국, 호주 및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인공와우가 난청을 이기는 첨단 기계 및 기술로 많이 보편화 된 상태로 난청 신생아 보다 성인에게서 더 많이 시술되고 있다. 성인의 경우에는 청력이 있었던 경험으로 말을 할 수 있어 소아의 경우보다 훨씬 적응력이 뛰어나고 시술 효과도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저 나이가 들었으니 어쩔 수 없다는지, 양측 귀를 여러번 수술해도 청력이 좋아지지 않았는데 하고... 자포자기하는 경우에 인공와우는 새로운 희망이 될 수 있다. 요즘 세상은 「사는 것」보다 「어떻게 사는 것」을 더 중요시하는 「well being」시대이다. 청력은 삶의 질을 결정짓는 요감 중 하나이다. 난청을 이길 수 있는 기적이 인공와우에 있다.



정 연 훈 교수 / 이비인후과학교실



의료원의 비전과 의학 연구

의료원 10주년을 맞아 전 교직원의 뜻을 모아 아주대의료원의 미래를 열어가길 비전을 확립하였고, 비전을 달성하기 위하여 ▲ 최고 수준의 진료 분야 발굴 ▲ 의과대학 평가에서 3위권 이내 진입 ▲ 세계적 수준의 연구 경쟁력 확립이라는 야심찬 실행목표가 설정되었다.

인터넷으로 세계적 수준의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의과대학들의 연구현황을 둘러보았다. 특징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의과학 및 보건의료연구를 통하여 기초 및 임상 연구에서 새로운 지식을 창출하여 복지사회의 근간인 인류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공통적으로 포함하는 목표를 담고 있었으며, 기초, 임상, 산업체와의 협력연구를 강조하는 것이 특징이었다. 이러한 실용적 목표중심의 연구 활동은 디프테리아 치료를 위한 혈청요법 (Behring), 결핵의 발견과 치료(Koch), 신경계의 구조(Cajal), 면역체계의 발견(Mechnikov), 신경전달의 원리(Dale, Loewi), 페니실린의 발견(Fleming), 스트렙토마이신의 개발(Waksman), DNA와 RNA 생합성 기전(Ochoa, Kornberg), DNA의 분자구조 발견(Crick, Watson, Wilkins), 질환 치료를 위한 조직 및 세포이식법(Murray, Thomas), G-protein의 발견(Dr. Gilman, Rodbell), 세포사멸의 분자생물학적 기전(Brenner Horvitz Sulston), MRI의 발견(Lauterbur, Mansfield) 등 눈부신 결실로 이어지는데, 이는 의학연구가 인류를 질병으로부터 보호하고 치료하는데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명확히 보여주는 노벨수상자들의 업적이다.

의료원 개원 초기에는 연구기반이 조성되지 않아 타 대학에 비교하여 연구 활동에 어려움을 겪은 기억이 있다. 1995년에 6억 원이었던 연구비가 2003년에는 84억 원으로 증가하였으며, 1989~1998년에 260편의 SCI 등재논문을 발표하였으나 2000년 후에는 매년 100편 이상의 SCI 논문을 발표하고 있어 양적팽창을 실감하게 되었다. 10년 전에는 impact factor(IF)가 2~3인 논문을 주로 발표하였으나 최근에는 각 분야의 top journal로서 IF가 5 이상인 논문을 발표하여 연구의 질적 성장을 지속하고 있다. 개개인의 연구 경쟁력이 강화되면서 대형연구센터의 유치가 가능해져 1998년에 과학재단의 우수연구센터(SRC)로서 「뇌질환연구센터」, 2001년에 복지부의 「간 및 소화기질환 유전체 연구센터」, 2003년에 과학재단의 기초의학 연구센터(MRC)로서 「만성염증질환연구센터」, 2004년에는 경기도 지역연구센터 육성사업(KRRC)에 「세포사멸조절 신약개발센터」 등이 선정되어 연구의 집산화와 특성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의과대학의 연구활동 잠재력과 업적이 지난 10년간 괄목하게 성장해 왔지만, 우리 교수들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에 공감하며 연구 경쟁력의 확충을 위한 발전적인 변화와 혁신의 필요성을 강하게 느끼고 있음을 공감한다. 현재 아주대학교의료원의 연구력 향상을 위한 기획과 지원 시스템으로 세계적 수준의 연구경쟁력을 확보할 것을 기대하는 교수들은 없을 것이다. 우수한 연구 인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총력전을 펼치며 최고의 교수들을 영입하고 있는 주변의 대학들이 우리와는 무관하게 느껴지는 것이 작금의 현

실이다. 연구 활동의 경쟁력은 자질이 뛰어난 대학원생과 postdoc의 능동적인 참여가 관건인데, 생명과학분야의 우수한 연구인력은 BK-21 등의 지원을 받는 경인지역 대학들과 지역 특성과 프로그램의 지원을 받는 지방의 대학으로 진학하고 있어 우리 의과대학은 연구경쟁력의 증진은 고사하고 현 수준을 유지하기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위기상황을 인지하여 의료원은 「선도연구주제 개발을 위한 기반 조성」을 최우선 전략과제 중의 하나로 선정하여 연구역량의 강화를 위하여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세계적 수준의 연구라 할 수 있는 최상급수준의 연구논문 발표, 세계수준의 기초 및 임상 연구 분야 발굴, 산업화를 위한 의료기술 및 신약개발을 위한 원천기술 개발을 목표로 설정하였다. 구체적인 실행을 위하여 연구센터의 설립을 통한 연구 분야의 협력 및 특성화 구축, 경기도에 유일하게 의과대학과 병원이 같이하고 있는 특성을 최대한 부각하여 세계적 신약개발을 위한 임상연구센터의 설립, 대형 연구과제의 유치를 위한 장단기 전략의 구축, 연구결과의 산업화를 위한 비즈니스 시스템의 구축을 추진하기로 의견이 모아졌다.

미국에서 10년간 학위과정과 postdoc 과정을 거치면서 삶의 지혜로 터득한 것이 있다. 스스로 선택한 것을 포기하지 않고,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쏟아 연구를 계속하며 연구의 동반자들의 얘기를 경청하면 좋은 결실을 맺게 된다는 것이다. 미국에서 postdoc을 마치고 미국에 계속 남을 것인지 내 나라로 돌아올 것인지 기로에 있을 때, 필자에게 「만약 우리나라에 돌아오기를 원하면 아주대학교 의과대학이 최고」임을 분명하게 전해준 동료 교수의 말은 생생한 기억으로 남아있다. 내가 아주대학교 약리학교실에 등지를 틈 지 어느덧 10년째에 접어들었다. 반추해보니 아주대학교와 의료원은 연구에 대해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마당이 되어주었다. 그래도 같음을 느끼는 것은 일차적으로 내 능력의 부족함에서 오는 것이고, 다음으로 아주대와 의료원이 겪고 있는 외부적 환경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연구에 대한 개인의 창의성과 자유가 최대한 존중되며 이를 같이할 준비가 되어있는 의료원과 동료교수들이 있기에 우리의 미래는 더욱 희망적이다. 우리 교수들은 이제 스스로 설 수 있는 충분한 연구기반을 갖추게 되었고, 이제는 「세계적 수준의 연구 경쟁력 확립」이라는 원대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아주마당에서 성장한 참다운 주인으로서 주역의 역할을 할 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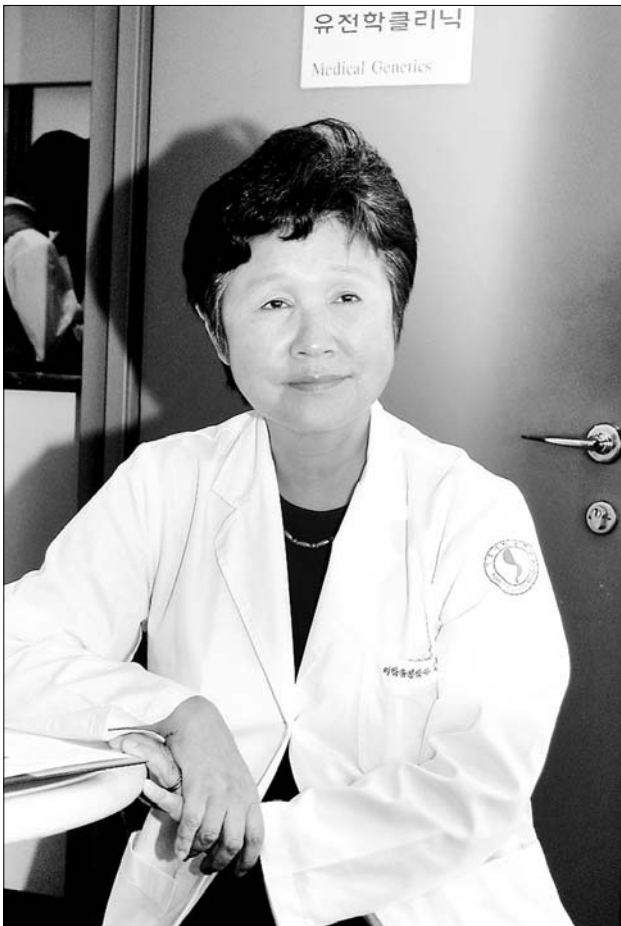


곽 병 주 교수 / 약리학교실



희귀질환자와 그 가족들의 영원한 대모, 김현주

최근 장애인복지 등에서 탁월한 업적을 이룩한 단체에게 주어지는 파라디시스상 사회복지부분에 수상자로 유전학클리닉 김현주 교수가 대표로 활동하고 있는 「한국희귀질환연맹」이 선정됐다는 반가운 소식을 접했다. 국내 최초 임상유전학 전문의로서 아주대학교의료원 개원과 함께 10년 동안 한결같이 희귀질환자들의 진단 및 치료 뿐만 아니라 희귀질환 환자들의 권익과 제대로 된 치료를 받게 하기 위한 사회적 여건조성을 위해 앞장서고 있는 유전학클리닉 김현주 교수를 만나보았다.



두 분과 함께 수상을 하게 되어 오히려 송구스러운 생각이 들었어요.

그 후 파라디시스 재단에 대해 알아봤더니, 지난 10년간 장애인복지 분야에서 다각면으로 장애 아동에 관련된 교육, 치료, 복지향상을 위해 특성화된 연구와 지원사업을 펼쳐 온 복지재단이라는 것을 알게되어 지금은 파라디시스 복지재단으로부터 상을 받게 된 것을 매우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국내 최초 유전학 전문의로서 국내 저변에 희귀질환에 대한 사회적 새로운 지평을 연 선구자 역할을 해오셨습니다. 어떤 계기가 있으셨는지요?**

1994년 27년간의 미국생활을 뒤로하고 아주대학교의료원 개원과 동시에 우리 나라에서는 최초로 유전질환 환자를 전문적으로 진료할 수 있는 유전학클리닉을 개설하여 진단과 치료는 물론, 유전상담과 관리를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 희귀질환(대부분 유전질환)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 부족은 물론, 학계 차원에서도 한국인의 희귀질환 규모나 문제점에 대해서 잘 알려지지 않고 있다는 상황에 저는 너무 놀랐습니다. 예를 들어, 의사가 환자를 위해서 필요한 처방을 내더라도 필요한 약이 수입이 되어있지 않거나 약이 있더라도 너무 고가여서 환자들이 구입할 수 없기 때문에 실제로는 치료가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희귀질환 치료를 위해서는 우선 약제 수입 및 의료보험 급여 등의 사회적 여건이 조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 필요성에 따라 제가 해야될 일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 교수님께서 대표로 활동하고 계신 「한국희귀질환연맹」이 「2004 파라디시스상」 사회복지 부분의 수상자로 선정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소감이 어떠신지요?**

솔직히 처음에는 상 자체보다 상금(4천만 원)으로 올 12월에 있을 제6회 한국희귀질환연맹 의료비지원 사업 지원금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희귀질환 환자들을 도울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니 기쁘고 그저 감사했습니다. 그러다가 얼마 전 신문에서 파라디시스상 수상 공고를 보니, 우리 사회에 많은 공헌을 하시고 계신 것으로 잘 알려진 한국 기독교계의 원로이신 강원용 님과 문화재 복원에 애쓰시는 신응수 님,

*** 희귀질환 관리 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늘 강조해 오셨는데, 현재 희귀질환자의 실태는 어떻습니까?**

희귀질환은(대부분 유전질환)의 종류는 매우 다양하고, 5,000여종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각 희귀질환 자체가 워낙 드물다 보니 일반 의료진에게조차 잘 알려져 있지 않고, 「30분 기다리고 3분 진료」해야 하는 한국적인 의료 현실에서 희귀질환을 진단하기 위해 자세한 병력(과거력)과 가족력을 알아내야 하는데 필요한 시간을 할애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제도적인 문제와 불충분한 진료시간으로 진단을 받는데만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대부분 환자들의 경우, 이 병원 저 병원

교수

전전하게 되고, 또한 진단을 받았다 하더라도 오진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특히, 확진된 경우에도 대부분 효율적인 치료제가 개발되어 있지 않은 난치병인데 의사한테서 유전상담을 받는 것은 기대조차 하기 힘들며 치료제가 없다면 재진에 대한 예약도 해주지 않으니 환자들은 다시 다른 의료기관을 찾아 헤매게 되어 시간적, 경제적 손실이 막대합니다.

따라서 희귀질환은 다른 질환과 달리, 진단에서도 특별한 지식과 경험이 필요하고 대부분 특수 검사를 통해서만 확진되며, 진단이 되었다해도 난치병이거나 퇴행성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유전 상담을 통한 예방 및 효율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 교수님의 수 많은 활동에 힘입어 희귀질환에 대한 사례가 신문, 방송을 통해 알려지면서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고, 사회적으로 많은 변화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벌써 10년이 지나다 보니, 그동안 불가능할 것이라는 여러분들의 예측을 깨고 한국사회에서 희귀질환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긍정적인 인식의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희귀질환에 대한 인식이 새로워지면서 정부 차원에서 2001년부터 희귀, 난치성 질환자 의

료비 지원사업으로 4개의 질환을 선정하여 의료비를 정부의 기금으로 지원하기 시작해, 해마다 단계적으로 적용범위를 넓혀 2004년에는 총 74개의 희귀질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이렇게 희귀질환 치료를 위한 사회적 여건이 점차 조성되고 있어 다행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의료혜택이나 사회복지차원의 지원망으로부터 소외된 환자들이 더 많기 때문에 이러한 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사회의 관심이 지속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 「한국희귀질환연맹」의 대표로 활동해 오시면서 어려운 점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글쎄요, 아직 남들에게는 문제로 보이지도 않는 것을 이슈로 해서 혼자서 헤쳐나가려고 하니 처음에는 주위에서 오해도 받게되고 도움을 얻는 것도 힘들었습니다. 많은 벽에 부딪히기도 했지만 이제는 공감해주는



파라다이스상은 그를 성취자의 뜻을 받들어 문화, 예술 및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한 인사를 격려하기 위하여 제정한 상입니다.

함께 나누며 사는 세상,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준 이 분들께 2004 파라다이스상을 드립니다



문화·예술 부문 수상
申 廣 秀
중요무형문화재 제74호, 大木匠



사회복지 부문 수상
韓國稀貴病患聯盟
代表 金 賢 主

적절한 치료는 물론 진단조차 받지 못한 채 사회적차별에서 소외되고 있는 희귀질환자들에게 최신 정보제공, 조기진단, 적절한 치료 및 의료혜택을 제공할



특별공로 부문 수상
姜 元 龍
대한문화이카데미 명예이사장
평화포럼 이사장

한국종교계를 대표하는 지도자로서 크리스천이카데미를 창립, 대한문화평화포럼 한국사회의 정의와 평화실현에 기여

【 2004 파라다이스상 시상식 】 • 일시 : 2004. 11. 9(화) 오후2시 • 장소 : 신라호텔 다이너스틸홀 【

분들의 성원에 힘입어 일을 진행할 수 있어 즐거움을 느낍니다.

* 어려움 속에서도 보람을 느끼는 경우는?

그간 불치병으로 알려져왔던 고셔병으로 허약해지고 대퇴골 골절 등으로 몇 년간 그저 집에만 누워있던 아이가 새로운 효소대치술이란 효율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되어 다시 학교로 돌아가 공부도 할 수 있게 되고, 산에도 오를 수 있게 되어 그 기쁨을 시로 써서 사진과 함께 보내왔을 때, 같은 병으로 일찍 떠난 동생을 상기하며 결혼은 엄두도 못내며 시한부 인생을 보내던 하동의 젊은 청년이 치료를 받기 시작하면서 결혼을 하고 벌써 두 아이의 아버지가 되는 것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기쁨을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이 보람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부천 1,600여 명의 어린이집 아이들이 고사리 같은 손으로 모은 돼지저금통의 돈을 내놓아 희귀병을 앓고 있는 친구들을 돕겠다고 연맹에 기부의사를 알려왔을 때 이루 말할 수 없는 감동을 받았습니다.

* 희귀질환자들을 돕기 위한 앞으로의 또다른 계획이 있으시다면

미국은 1982년, 일본도 1992년에 임상유전학 전문의 인증제도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나라에서도 희귀질환을 전문적으로 진단, 상담, 적절한 치료, 관리 등을 할 수 있는 전문의 양성과 임상유전학 전문의 인증제도가 필요합니다. 대한의학유전학회가 중심이 되어 임상유전학 전문의 교육, 연수 과정에 대한 프로그램 개발과 임상유전학 전문의 인증제도 수립을 위해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아주대학교의료원에 「유전질환 임상연구센터」를 설립하여 유전질환 조기진단과 유전상담을 통해서 적절한 관리 체계가 수립되고, 효율적인 치료제 개발에 대한 연구 지원, DB 구축을 통한 한국인의 유전학적 특성 규명에 대한 연구 등이 활발하게 일어 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 희망입니다.



한국희귀질환연맹은 적절한 치료는 물론 진단조차 받지 못한 채 사회복지혜택에서 소외되고 있는 희귀질환 환자들에게 희귀질환에 관한 최신 정보를 제공하여 조기진단, 적절한 치료 및 의료혜택접근을 돕고자 마련된 2000년 5월 「희귀질환 치료를 위한 사회적 여건조성」 심포지움과 2001년 4월20일 장애인의 날 SBS 특별방송 『사랑의 릴레이, 희귀질환자들에게 희망을』 ARS 모금방송을 계기로 2001년 5월26일 창립됐다. 김현주 교수가 대표로 활동하고 있는 한국희귀질환연맹은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12인)가 사업 자문 및 심사를 맡고 있으며, 사업진행 및 관리를 담당하는 사회복지사가 있다. 또한 아주대학교의료원의 협력과 후원회의 지원을 받아 활동하고 있다.

대국민 인식개선 사업(심포지움 및 워크숍 개최 등) 진행

희귀질환의 특성상 환자와 의사와의 의료행위를 넘어서 사회복지차원에서 접근해야 하며 희귀질환 환자들이 필요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이 조성되어야 하기에 심포지움을 통해 의료, 연구, 보건정책, 사회복지 등 각계각층의 이해와 지원을 이끌어내고자 2000년 5월27일 시작으로 올해로 5회째 개최하고 있다.

특히, 이번 「제5회 희귀질환 치료를 위한 사회적 여건조성 심포지움」에서 김현주 대표는 효율적인 희귀질환 관리를 위한 의료서비스와 연구지원 체계에 대한 대안으로 포괄적인 희귀질환 지원 정책 수립, 임상유전학 전문의 제도 수립, 전문 의료기관 지정 지원, 의료전달체계의 구축, 희귀질환 연구 활성화를 제시해 주목받았다.

또한 희귀질환자가 당면한 문제를 짚어 보고 사회적 편견을 개선시켜 나갈 수 있도록 희귀질환자, 각 분야 전문가 등이 모여 다각적인 대안을 모색해 보는 기회를 제공하는 워크숍을 개최했다.

출판사업 전개

한국희귀질환연맹이 창립되기까지의 과정을 담은 「사랑의 릴레이 - 희귀질환 환자들에게 희망을」을 지난 2001년에 출판했으며, 2000년부터 개최한 한국희귀질환연맹 심포지움의 초록집을 발간하고 있다.

대중매체를 통한 대국민 교육, 홍보, 모금 운동 진행

1998년 1월11일 SBS 「문성근의 다크세상, 그것이 알고 싶다 - 또 하나의 그늘, 고셔병을 앓는 아이들」 방송으로 모금된 후원금 1억5천만원을 시작으로 1998년 4월19일, 20일 양일간 SBS 장애인의 날 특집방송 「사랑의 한걸음」 고셔환자 돕기 ARS 모금, 2001년부터 매년 SBS 장애인의 날 특별생방송 「사랑의 릴레이- 희귀질환자에게 희망을」 ARS 모금 등을 통해 희귀질환자들의 치료비를 지원하고 있다.



SBS 문성근의 다크세상 그것이 알고 싶다, 「또 하나의 그늘, 고셔병을 앓는 아이들(1998.1.11)」, 「그들만의 키작은 세상, 왜소증 아이들(2001.4.7)」, 「어느날 갑자기 내가 몰랐던 나의 비밀, 희귀병(2001.12.8)」, 「한국의 기부문화(2002.12.14)」, KBS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유전의 비밀(2002. 1.29)」, KBS 제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AM 639 khz)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2002.7.5)」, MBC 생방송 이주 특별한 아침 「불치병 아이를 살해한 아버지(2002. 7.10)」, 메디-TV 「김철중의 의료파일(2002. 9.19)」, KBS 추적60분 「희귀병과의 싸움 - 나는 살고 싶다(2004.6.16)」 등에 한국희귀질환연맹의 대표인 김현주 교수가 출연해 대국민의 대한 교육, 홍보 등을 전개하여 희귀질환자에 대한 인식 개선에 괄목할만한 성과가 나타났고, 이에 따라 모금운동에 많은 분들이 동참했다.

희귀질환 관련 정보 제공

희귀질환의 조기진단, 적절한 치료 및 의료 혜택의 접근이 가능하게 하고, 관련 단체 및 기관의 유기적인 협력으로 희귀질환 치료를 위한 사회적 여건 조성을 위해 희귀질환에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는 연맹 홈페이지(www.kard.org)를 운영하고 있으며, 인터넷 접근이 어려운 환자와 가족들을 위해 소식지 「사랑의 릴레이」를 계간으로 발간하고 있다.



의료비 지원사업 전개



2004년 현재까지 SBS 「사랑의 릴레이」 기금, 사랑의 교회 사회복지재단 지원금, 삼미문화재단, 로또공익재단 후원 기금 등으로 204명의 희귀질환자에게 132,061,417원의 의료비를 지원했다.

환자 및 가족들을 위한 문화행사(사랑의 릴레이) 진행



2002년 4월 에버랜드에서 개최한 제1회 봄맞이 야유회를 시작으로 희귀질환자와 가족을 위한 「사랑의 릴레이, 희귀질환자에게 희망을...」 음악회 등을 개최, 문화적인 혜택으로

부터 소외된 희귀질환자와 가족들을 초대하여 희귀질환자와 가족들에게 여가활동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 행사에 일반인들이 동참하여 희귀질환에 대한 편견을 해소시키는 자리를 마련하고 있다.



자조회 설립 및 활동 지원



한국희귀질환연맹에서는 ▲ 한국고서모임회 결성, 치료제 수입, 보험 획득, 치료기금조성 ▲ ALD 부모들을 위한 교육 Conference 3회 제공 ▲ 키작은 모임(LPK)활동 지원, 장학기금조성 ▲ 희귀염색체 증후군(프라더윌리증후군, 모성 증후군, 윌리엄 증후군) 부모 모임 결성 및 교육 세미나 개최 ▲ 소뇌실조증(Ataxia) 모임회 결성 및 자조회 활동 지원 ▲ 한국 RP협회 활동지원 ▲ 신경섬유종 모임 활동 지원 ▲ 수포성포피박리증 자조회 모임 지원 등 희귀질환 환자와 가족을 기존의 자조회에 연결해 주고, 아직 자조회가 없어 자조회를 설립하고자 경우는 이를 도와주며 교육 세미나, 각 자조회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희귀질환 지원기금 위탁 관리 및 환아돕기 모금액 관리 사업

한국희귀질환연맹에서는 김현주 대표가 솔루션 위원회의 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SBS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행」에 출연한 환아에게 지원되는 로또공익재단기금으로 희귀질환 환아 지원기금 위탁 관리 및 환아 돕기 후원 모금액 기탁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향후 사업 계획

정확한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각 질환별 특성과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합리적이고 현실성 있는 지원정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희귀질환 DB 구축사업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예정이며, 올 연말에도 의료비 지원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 또한 환우 시집 출판, 제3회 음악회 개최, 홈페이지 개편을 계획 중이다. 앞으로 선진국과 같이 연구기금을 조성하여 희귀질환 연구를 후원하고자 한다.

한국희귀질환연맹 후원회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산 5번지 아주대학교병원 1층 유전학클리닉 내 (우편번호 : 443-721)
 전화: 031)219-9230 / 팩스: 031)219-5299
 이메일: raredisease@hanmail.net / 홈페이지: www.kard.org

- 1997. 5. 한국고서모임회 결성
- 1998. 4. SBS 장애인인 날 특집 「사랑의 한걸음」방송으로 고서환자 치료기금 조성
- 2000. 4. 제1회 「희귀질환 치료를 위한 사회적 여건 조성」 심포지움 개최
- 2000.12. 한국작은키모임(LPK) 창립 모임
- 2001. 4. 한국희귀질환연맹 창립 준비 모임
- 2001. 4. 제1회 SBS 장애인인 날 특별생방송 「사랑의 릴레이」 ARS모금으로 희귀병 환자 돕기 기금 1억6천만원 모금
- 2001. 5. 한국희귀질환연맹 창립식 및 제2회 심포지움 개최
- 2001. 8. 한국희귀질환연맹, 비영리 단체 법인등록 (고유번호 124-82-62249)
- 2001.10. 「사랑의 릴레이」 소식지 창간호 발간
- 2001.12. 「사랑의 릴레이, 희귀질환 환자들에게 희망을(김현주 교수 편저)」 출판
- 2002. 4. 제1회 봄맞이 아우회 개최(용인 에버랜드)
- 2002. 6. 연맹 총회, 왜소증과 저시력 장애인의 학업 및 취업에 대한 워크숍 개최
- 2002. 6. 수포성포피박리증 자조회 모임 개최
- 2002. 9. 아탁시아 자조회 총회 준비위 모임 개최
- 2002.10. 제1회 의료비지원 사업 : 희귀질환 환자 39명에게 2천2백만원 지급
- 2002.10. 제6회 희귀염색체 증후군 환자와 가족을 위한 모임 개최
- 2002.11. 제2회 신경섬유종 모임 개최
- 2002.11. 제1회 아탁시아 총회 개최
- 2002.11. 한국 RP 협회 모임 개최
- 2002.11. 제1회 희귀질환자와 가족을 위한 「사랑의 릴레이-희귀질환자에게 희망을...」 음악회 개최
- 2002.12. 사랑의 교회(사회복지재단) 의료비 지원금 3천만원 기탁
- 2003. 2. 제2회 의료비지원 사업 : 희귀질환 환자 42명에게 3천만원 지급
- 2003. 2. 사랑의 한걸음(NCSOFT · 북극점원정대) 최윤관 어린이 후원
- 2003. 2. 한국작은키모임(LPK)에서 사랑의 릴레이 성금 전달
- 2003. 3. 희귀질환 환자와 가족들을 위한 「우리 함께 해요」 아주대의대 메디첨버 정기 연주회 개최
- 2003. 4. 제3회 SBS장애인의 날 특별생방송 「사랑의 릴레이」 희귀병 환자돕기 기금 모금
- 2003. 5. 로또공익재단기금 SBS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행」출연 환아지원 협약 체결
- 2003. 5. 정기총회, 제4회 심포지움 및 사회적 편견에 대한 인식개선 워크숍 개최
- 2003. 6. 아탁시아 이사회 모임 지원
- 2003. 6. LG 복지재단의 성장호르몬제 무상지원 사업 실시
- 2003. 7. 제7차 LPK 정기총회 및 제3차 여름캠프 참석
- 2003. 7. 제3회 의료비지원 사업 : 희귀질환 환자 44명에게 2천5백만원 지급
- 2003.10. 제2회 「사랑의 릴레이-희귀질환자에게 희망을...」 음악회 개최
- 2003.10. 제8회 희귀염색체증후군 환자와 가족 모임회 지원
- 2004. 1. 「사랑의 릴레이」 소식지 제10호 발간
- 2004. 1. 제4회 의료비지원 사업 : 희귀질환 환자 47명에게 3천7백만원 지급
- 2004. 2. 제9회 희귀염색체-PWS 환자와 가족을 위한 모임 개최
- 2004. 3. 모성증후군, 윌리엄증후군 환자와 가족을 위한 모임 개최
- 2004. 4. 희귀병 아동돕기 「제5회 꼬마 마라톤 대회」 기금 관리
- 2004. 5. 제5회 「희귀질환 치료를 위한 사회적 여건 조성」 심포지움 및 정기총회 개최
- 2004. 6. 연맹 홈페이지 개편 (삼성 SDS 헬스케어사업팀 지원)
- 2004. 8. 제5회 의료비지원 사업 : 희귀질환 환자 32명에게 2천4백만원 지급
- 2004. 8. SK Telecom 「아름다운 통화」 ARS 모금사업 참여 : 희귀질환 소개



통증은 사라지지만 아름다움은 남는다!

(The Pain Passes But The Beauty Remains)



▲ 달팽이 (마티스 Matisse Hemi, 1869~1954)

마티스는 「가위는 연필보다 한층 감각적」이라고 말하면서 색종이 그림 작업을 계속했다. 당초 이 달팽이는 「현실에 뿌리박은 추상적 패널」이라고 이름 붙여 있었다. 1940년대부터 진행해 온 색종이 그림은 기존의 오브제를 화면에 도입한 꼴라주와는 다른 단색 깃슈를 칠한 종이를 오려내어 그것을 풀로 붙여 구성하는 형식이다.



▲ 화실에서 작업 중인 앙리 마티스

관절염은 관절의 통증으로 인해 생활을 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가져온다. 더구나 예술가에게 있어서의 관절염은 공포에 가깝다. 붓을 드는 것만으로도 매우 견디기 힘든 고통을 가져오기 때문이다. 관절염을 앓으면서도 굴하지 않고 훌륭한 작품을 만들어 낸 두 위대한 예술가 르누아르(Renoir)와 마티스(Matisse)를 소개하고자 한다.

마티스는 르누아르보다 28살의 나이가 어렸지만, 둘은 진정한 친구이자 예술의 동반자였다.

르누아르는 말년에 관절염으로 인해서 거동이 매우 불편하여 집 밖을 나가기가 어려웠으므로, 마티스는 거의 매일 르누아르의 집을 방문하였다. 르누아르는 관절염에 의해 손이 거의 마비되었으나, 그림을 계속해서 그렸다. 어느 날 마티스가 그림을 그리고 있는 르누아르에게 「르누아르, 왜 그런 고통 속에서도 그림을 그리니까?」하고 물었다.

르누아르는 「통증은 사라지지만 예술은 남는다!」고 대답하며 그림을 그렸다. 마티스는 어느 정도의 고통을 통해서 영속하는 아름다움이 탄생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다.

마티스 또한 노년에 관절염으로 몸을 거동할 수 없게 되었다. 마티스는 르누아르와는 다른 방법으로 자신의 고통을 극복하기 위해 색종이 그림이라는 새로운 기법을 개발하였다. 마티스는 손으로 그림을 그릴 수 없게 되자, 병상에 누워 종이 자르기 작품을 제작하기 시작하였다. 마티스는 붓 대신에 가위를, 튜브 대신에 색종이를 사용해 꼴라주의 회화 요소로서 평면적 성격을 부활시켰다. 마티스의 색종이 그림은 작품 세계의 완결이라고 표현될 만큼 평면적이고 자유로운 색채가 강조되었다. 마티스가 사망하기 2년 전에 만들어진 「달팽이(Snail)」는 마티스가 관절염에 의해서 손으로 그림을 그릴 수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가장 사랑하는 예술을 최선을 다해서 표현한 대표적인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서창희 교수 / 알레르기·류마티스내과학교실(관절염센터)

의료원 ▶▶▶

의료원 10주년 기념식 및 비전선포식 성료



의료원은 지난 9월10일 금요일 아주대학교 체육관에서 개원 10주년 기념식을 개최, 1,500여명의 교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끝마쳤다.

이날 기념식에는 학교법인 대우학원 윤원석 이사장, 아주대학교 박재운 총장, 故 김효규 총장의 부인인 이귀명 여사 등 많은 내외빈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으며, 경기도청을 비롯한 35곳에서 축하 화환을 보내며 의료원 10주년을 축하했다.

기념식에서 의료원은 10주년을 맞아 「우리는 항상 당신 곁에 있으며, 당신의 아픔을 치유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헌신합니다」라는 비전을 선포, 전 구성원의 화합을 도모하고 의료원의 재도약과 발전을 기원했다.

이날 기념식 1부에서는 장기근속 교직원 및 유공자에 대한 표창을 실시하고, 2부에서는 비전선포식이 거행됐으며, 마지막 3부에서는 간호부 스포츠탄스 동아리와 Ajou 장기자랑 Festival 입상자, 전인권 밴드 등을 초청하여 축하공연 시간을 가졌다 <관련기사 18페이지>.

제2회 수원시 보건의료인 공로상 시상식 개최



의료원은 지난 9월7일 화요일 오후 5시 병원 지하1층 아주홀에서 제2회 수원시 보건의료인 공로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의료원과 수원시가 공동으로 제정한 제2회 수원시 보건의료인 공로상 대상에는 원천외국인 의료사역팀이, 금상에는 영양산부인과 박영양 원장이, 은상에는 한가족치과 진료소가 선정됐다.

대상을 수상한 원천외국인 의료사역팀은 수원시 원천침례교회의 의사들을 중심으로 구성된 의료봉사 및 선교단체로, 외국인 노동자의 무료진료 및 한글교실, 미용봉사활동, 해외무료진료 활동 등을 해온 공로가 인정되어 대상의 영예를 안았다.

금상을 수상한 박영양 원장은 1999년부터 수원시 여성의 쉼터 전문위원으로서 가정폭력 피해를 입은 여성들에게 무료진료 활동을 해왔으며, 한가족치과 진료소는 1989년 9월부터 15년간 치과 의사들을 주축으로 외국인근로자, 영세민 및 독거노인, 신체장애인 등 소외된 불우이웃을 대상으로 무료진료를 펼쳐왔다.



의료원, 세포치료센터 개소

의료원은 지난 9월6일 월요일 오후 12시30분 의과대학 1층 로비에서 박재운 아주대학교 총장, 송문수 코오롱 사장 등 내외빈이 참석한 가운데 「세포치료센터」 개소식을 가졌다.

세포치료센터(센터장 : 정형외과 민병현 교수)는 의료원 뿐만 아니라 수원시, 코오롱이 대규모 연구자금을 공동으로 투입하는 산·학·관의 협력형태의 새로운 연구센터로, 줄기세포를 이용한 「세포치료제」를 개발하고, 이들 제품을 신약으로 개발하여 실제로 난치·불치병 환자치료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설립된 연구센터이다.

한편, 세포치료센터는 개소식 이후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병원 지하1층 아주홀에서 「세포치료제 개발」을 주제로 한 심포지움을 개최했다.

심포지움에서는 아주대 서해영, 박준성, 민병현 교수와 인하대 박현선 교수, 카톨릭대 오일환 교수, 크래이젠(주) 배용수 연자, 메디포스트(주) 양운선 연자가 국내 세포치료의 현황 및 세포치료제 시술, 세포치료센터의 역할 등에 대해 발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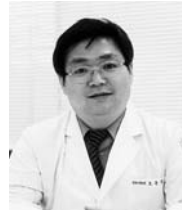
의료원, 신경과학기술연구소 외 신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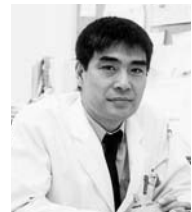
▲ 광 병 주 소장
(신경과학기술연구소)



▲ 민 병 현 소장
(세포치료센터)



▲ 조 준 필 소장
(지역사회 안전증진 연구소)



▲ 조 기 흥 소장
(의학문헌정보센터)

의료원은 2004년 8월19일부로 기획조정실 산하에 감사팀과 의과대학 산하에 의료정보학과를 신설하고, 의과대학 부설기관으로 신경과학기술연구소, 세포치료센터, 지역사회 안전증진 연구소를 신설했다.

한편, 의료원은 8월19일부로 신경과학기술연구소장에 약리학교실 광병주 교수를, 세포치료센터소장에 정형외과학교실 민병현 교수를, 지역사회 안전증진 연구소장에 응급의학교실 조준필 교수를 임명하고, 8월1일부로 의학문헌정보센터소장에 신경의과학교실 조기홍 교수를 연임 임명했다.



10주년 기념 즉석 발전기금 모금행사, 500여만원의 후원 이어져

의료원은 9월10일 개원 10주년 기념 행사장 입구에서 「의과대학 교육·연구동 건축기금 모금행사」를 실시, 즉석 현금출연과 후원약정을 통해 총 29명이 4,870,000원의 기금을 후원했다.

한편, 지난 9월7일 의료기술부서 직원회 일동이 500만원을, 9월8일에는 갈렘앤컴퍼니 박기준 대표가 200만원을 발전기금으로 기탁했다.

의료원 비전전략 워크숍 개최



AJOA

의료원은 지난 9월4일 오전 9시30부터 오후 6시까지 병원 지하1층 아주홀과 송재관 제5 강의실에서 「의료원 비전전략 워크숍」을 개최했다.

참석대상자 38명 중 총 36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번 워크숍은 3/4분기에 시작한 8개 전략과제팀에서 그동안의 업무 경과보고와 전략기획안을 제시하였다.

이날 김효철 의료원장은 『전략 수립 과정을 통하여 체계적 발전기반을 마련했다』고 평가하고, 『비전과 실행전략은 지속적으로 재조정되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문창현 학장은 『의과대학 평가 국내 3위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 중 당장 실행할 수 있는 전략이 많아 큰 도움이 되었다』고 평가하며, 『전략 기획안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실무진과 협조가 긴밀하게 이뤄졌으면 한다』고 밝혔다. 또한 홍창호 병원장은 『전략안에서 재정적 측면과 시간적 측면을 감안하여 우선 실행과제를 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제시한 전략들이 실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하였다.

간호부 · 간호학부, 「건강수명과 간호」 학술대회 개최



의료원은 개원 10주년을 기념하여 9월17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30분까지 별관 대강당에서 간호학부와 간호부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학술대회는 김효철 의료원장, 연세대 오가실 교수, 평택시 민병욱 보건소장 등 내외빈을 비롯한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최근 관심이 급증하고 있는 「건강수명과 간호」를 주제로 성황리에 개최됐다.

학술대회에서는 서울대 의과대학 박상철 교수가 「건강수명과 기능적 장수」에 대해, 아주대 간호학부 송미숙 교수가 「건강수명과 간호학적 접근」에 대해, 연세대 간호대학 김수 교수가 「건강수명과 최신 건강이론」에 대해, 포천중문 의과대학 전세일 교수가 「건강수명과 보완요법」에 대해 발표하는 등 이론적인 배경 및 실무적인 내용을 다루어 참가자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했다.

9월 교직원 월례회 개최



의료원은 9월23일 목요일 오후 4시50분부터 6시까지 별관대강당에서 9월 교직원 월례회를 개최했다.

이날 1부에서는 8월 모범교직원을 선정된 교육수련부 조혁 인턴과 10주년 기념 특별상(병원장상)에 선정된 협력업체 직원 및 종교실, 자원봉사자를 시상하고, 이어 2부에서는 가천의과대학교 이성낙 총장이 「내가 생각하는 건강과 운동」이라는 주제로 교양특강을 실시했다.

의과대학 ▶▶▶

경기도 지역협력연구센터 중 세포사멸조절 신약개발센터로 지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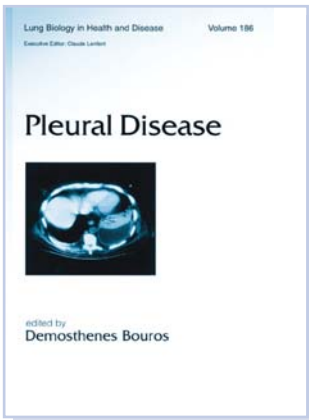
의과대학이 지난 9월8일 경기도로부터 경기도 지역협력연구센터 중 「세포사멸조절 신약개발센터」로 선정됐다.

경기도 지역협력연구센터는 경기도 지역특화산업의 기술력 제고 및 우수인력 양성을 위해 장기적으로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세포사멸 조절 신약개발센터는 경기도와 수원시로부터 매년 5억원의 연구비를 9년간 지원받게 된다.

세포사멸조절 신약개발센터는 해부학교실 이영돈 교수를 센터장으로 하여 퇴행성 신경감각계 질환과 당뇨병, 골다공증 등 대사성 질환의 치료를 위한 바이오 신약 및 단백질 신약 등을 개발하고, 경기지역 바이오 산업체를 위한 신약개발 바이오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하여 이영돈 교수는 『세포사멸조절 신약개발센터가 경기지역을 신약연구의 중심지로 발전시키고, 지역사회 의약산업 발전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진단방사선과 김옥화 · 박경주 교수, 미국 NIH에서 발간하는 도서 저자로 참여



진단방사선과학교실 김옥화 교수와 박경주 교수가 미국 국립보건원(NIH)에서 각 질환별 시리즈로 발간하고 있는 도서 중 하나인 「Pleural Disease(늑막질환) - Marcel & Dekker사 발간」 필자로 참여했다.

「Pleural Disease」는 전 세계적으로 늑막질환에 대해 탁월한 연구성과가 있는 교수들이 참여하여 저술한 것으로, 김옥화 교수는 1998년 북미방사선학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고 2000년 북미방사선학회 잡지(Radiographics)에 게재된 「소아 흉부질환의 초음파 진단」에 관한 논문이 높이 평가되어 이번 저자로 참여하게 됐다.

김옥화 교수와 박경주 교수는 「Chapter7 : 늑막질환의 초음파 진단」에 대해 저술했다.

이와 관련해 김옥화 교수는 『본 저서가 환자 진료에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며, 관심있는 분들은 직접 문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간호학부, 2004학년도 논문발표회 개최

간호학부는 지난 9월1일 수요일 오후 2시 별관 대강당에서 2004학년도 정규 4학년 논문발표회를 개최했다.

이날 논문발표회에서는 「대학생의 운동 참여에 따른 스트레스와 대처 방식에 대한 연구」 외 6편의 논문이 발표됐다.

노재성 교수, 마르키스 후즈후 인명사전 등재

정신과학교실 노재성 교수가 세계적인 인명기관인 마르키스사에서 발간하는 후즈 후(Who's Who)에 의학 및 보건분야 업적자로 등재됐다.

노재성 교수는 정신분열증에서 생물정신의학 연구 성과가 높이 평가되어 지난 8월에 발간된 2004~2005년판 「Who's Who in Medicine and Healthcare」에 등재됐다.

응급의료정보센터(1339) 추석연휴기간 비상근무체제 운영

응급의료정보센터(1339)는 2004년 추석연휴 기간(2004.9.25~9.29) 중 경기도 내 관할 보건소로부터 진료계획을 통보받아 정보센터 직원을 비롯한 공중보건의사와 자원봉사자가 비상근무체제로 운영, 의료기관 및 약국 안내(6,128건), 질병상담 및 응급처치지도(120건), 구급차 출동(7건), 기타 문의 전화(448건) 등 총 6,703건을 접수처리하여 경기남부권역 내 지역주민들에게 응급의료에 대한 편의를 제공했다.

보 원 ▶▶▶

병원, 방사선비상진료기관으로 지정

병원은 최근 과학기술부로부터 방사선비상진료기관으로 지정됐다.

방사선비상진료기관은 원자력발전소의 방사능재난이나 방사성 동위원소 사용증대에 따른 각종 방사능사고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처를 위한 것으로, 방사선 비상진료와 방사능 사고시 사고 현장에 비상진료팀을 파견하여 방사능오염환자의 치료 및 후송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한편, 방사선 비상진료팀은 지난 8월25일 안산시 경기테크노파크에서 실시된 「2004 을지훈련」에 참가, 화생방 훈련을 실시했다.

10주년 기념 상금으로 이웃사랑 실천

지난 9월2일 개최된 Ajour 장기자랑 Festival에서 우수상을 수상한 영양팀 난타 공연팀이 부상으로 받은 상금을 사회복지기관에 쾌척했다.

난타 공연팀은 상금 50만원을 화성시 태안읍 기산리에 소재한 노인요양시설인 「소망의 집」에 겨울철 유튜브로 기증했으며, 9월 18일에는 소망의 집을 방문하여 위문공연 및 노인들에게 점심식사를 대접했다.

한편, 신경과 조양호 의료기사가 10주년 기념식에서 받은 공로상(병원장상) 상금을 효행원 아이들을 위해 기증, 의료원 인라인 동호회로부터 매주 인라인 스케이트를 배우고 있는 효행원 아이들에게 인라인 스케이트를 선물했다.

신문 · 방송에 보도된 아주대의료진

신문(Newspaper)

일시	매체	보도대상자	보도내용
9.1	한겨레	진단방사선과 조재현 교수	영상으로 찍은 건강이야기-숨쉬기도 잘하면 안전한 운동
9.2	문화일보	소아과 배기수 교수	아토피증 어린이 밤엔 과일도 금물
9.2	경기일보	소화기내과 함기백 교수 소화기내과 이기명 교수 외과 한상욱 교수	암을 이기자(3) - 위암
9.2	경기일보	소아과 배기수 교수	수원에 '세포치료센터' 세운다
9.7	한겨레	정형외과 민병현 교수	불치병 세포치료센터 반드시 개발
9.7	경인일보	정형외과 민병현 교수	차세대 성장동력 '줄기세포 연구' 발전
9.8	한겨레	진단방사선과 조재현 교수	영상으로 찍은 건강이야기-유방암
9.9	경기일보	호흡기내과 황성철 교수 흉부외과 최호 교수	암을 이기자(4) - 폐암
9.15	한겨레	진단방사선과 조재현 교수	영상으로 찍은 건강이야기-유방성형
9.15	경인일보	김효철 의료원장	난치·불치병 치유 '의료메카'로...
9.15	경기일보	김효철 의료원장	국내의학발전 선도 '큰 역할'
9.16	경기일보	소화기내과 조성원 교수 외과 왕희정 교수	암을 이기자(5) - 간암
9.22	한겨레	진단방사선과 조재현 교수	영상으로 찍은 건강이야기-건강감진
9.23	경기일보	외과 정용석 교수 성형외과 박명철 교수	암을 이기자(6) - 유방암
9.30	경기일보	신경외과 조경기 교수 신경외과 김세혁 교수	암을 이기자(7) - 뇌종양

방송(Broadcasting)

일시	매체	보도대상자	보도내용
9.4	SBS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행	유전학클리닉 김현주 교수 정형외과 조재현 교수 성형외과 정재호 교수	반달엄마의 하나뿐인 보물
9.7	SBN 경기TV뉴스	정형외과 민병현 교수	세포치료센터 개소



제1회 의료기술부서 합동 QI 보고대회 개최

의료기술부서직원회는 지난 9월7일 화요일 오후 5시30분 별관대강당에서 제1차 의료기술부서 합동 QI 활동 보고대회를 개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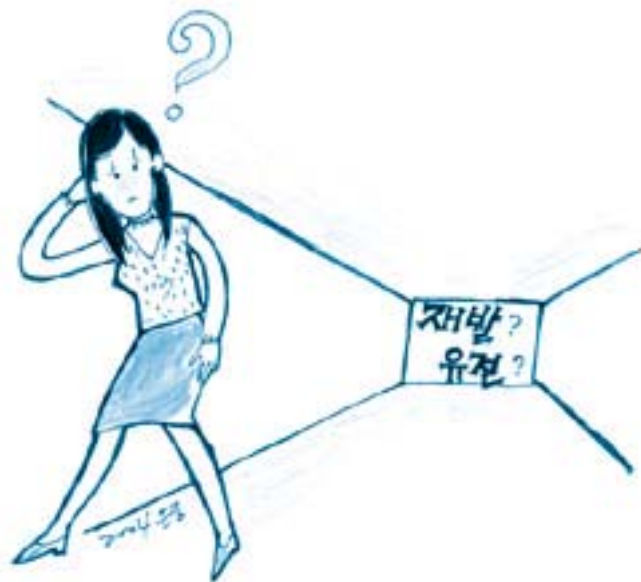
이번 보고대회는 의료기술 부서의 보다 수준 높은 QI 업무 활성화를 도모하고 나아가 의료원 발전에 기여하고자 실시된 것이다.

또한, 보고대회에 앞서 의료기술부서직원회는 발전기금으로 500만원을 전달했다.



여러분의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갑상선기능항진증은 수술 후에도 재발된다던데...



Q

1996년 갑상선 기능항진증으로 수술을 받은 미혼 여성입니다. 갑상선 기능항진증은 수술한 지 10년 후 재발될 가능성이 높다고 들었습니다. 약을 복용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임신하면 태아에게 유전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입니다.

A

갑상선 기능항진증은 수술 후 환자의 80%가 정상 기능을 유지합니다. 재발은 약 5%, 기능저하는 약 15% 정도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재발이나 기능저하를 일으키는 경우 대개 5년 내에 많이 발생하여 70% 정도가 생기고 수술 후 5년이 지나서는 30% 정도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술 후 재발이나 기능저하가 되어도 이를 치료하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환자분의 경우 5년이 지난 현재 갑상선 기능이 정상이라면, 향후 재발의 가능성은 거의 없고 나이가 지날수록 기능저하의 가능성은 있으나 그 치료는 극히 간단하고 정상생활 및 임신에 아무런 이상이 없습니다. 즉, 환자분은 향후 약을 복용할 필요가 없으며 이상이 생길 가능성은 5% 이하로 생각하셔도 되겠습니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매년 한차례 갑상선 호르몬 검사를 받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현재 대부분의 환자들이 수술 후 정상적인 임신과 출산을 하고 있으므로, 결혼, 임신, 자식에게로의 유전 등은 걱정하실 필요가 없겠습니다.

< 외과 소의 영 교수 >

전립선염이 만성골반통 증후군을 유발한다는데, 맞습니까?

Q

전립선염을 오래 앓고 있는 40대 남성입니다. 전립선염이 회음부 긴장을 유발한다고 들었는데 맞는 말인지요? 그리고 전립선 비대증은 언제부터 나타나는지 궁금합니다.

A

전립선염이 회음부 근육의 긴장도를 증가시킨다는 것은 맞습니다. 전립선염의 치료는 주로 약물치료를 4주 이상 하여야 하며 검사상 전립선염이 호전되거나 완치가 되어도 회음부 근육의 긴장도 때문에 불편감이나 간헐적인 동통 등의 증상이 남아 있을 수 있으며 이는 만성골반통증후군이라고 할 수 있어 증상에 대한 치료가 필요합니다.

전립선은 30세경부터 서서히 증가하여 50대경부터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전립선비대증이라는 것은 이렇게 나이가 들면서 증가하며 전립선의 크기가 크다고 모두 치료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증상의 유무와 검사상 이상이 있을 경우에 치료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 비뇨기과 최 종 보 교수 〉



비뇨기과 외래

031-219-5585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아주대의료원 소식」이 독자 여러분께 좀 더 유익한 의학정보지로 다가서기 위해 다음과 같이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화, 팩스, 우편, 이메일로 보내주시는 여러분의 참여는 보다 나은 「아주대의료원 소식」이 되는 소중한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 건강 Q & A / 나의 건강상식은

궁금해 하시는 건강문제에 대해 전문의에게 상담하고 싶은 내용을 문의해 주시면 만족스러운 상담이 되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 우리 병원 어떻습니까

아주대병원 이용에 있어 느끼신 점 혹은 건의사항 등이 있으시면 최대 200자 원고지 5매(A4 3분의 2장 정도) 이내로 보내 주십시오. 여러분의 의견을 소중히 듣고 보다 좋은 병원 만들기에 노력하겠습니다.

■ 나누고 싶은 이야기 / Zoom & Zoom

아주대의료원 주변에서 좋은 일을 하는 분, 따뜻한 사연이 있는 분을 아주대의료원소식에 모시고자 합니다. 많은 추천을 부탁드립니다.

■ 제보 · 원고 보내주실 곳

- 전 화 031-219-5368 • 팩 스 031-216-6386
- 주 소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산 5번지 아주대학교의료원 홍보팀 (443-721)
- 이메일 apr@ajou.ac.kr

모두가 한마음이 된 의료원 10주년 기념식 및



아주대학교의료원은 10주년을 맞아 지난 9월10일 금요일 아주대학교 체육관에서 10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기념식에는 내외빈과 1,500여명의 교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의료원 10주년을 축하하고, 비전을 선포, 전 구성원의 화합을 도모하고 의료원의 재도약과 발전을 기원했다.

이날 기념식 1부에서는 장기근속 교직원 및 유공자에 대한 표창을 실시, 의료원 홍보영상물 상영이 있었으며, 2부에서는 비전선포식이 거행됐다. 마지막 3부에서는 간호부 스포츠댄스 동아리와 제3회 Ajou 장기자랑 Festival 입상자, 전인권 밴드 등을 초청하여 축하공연 시간을 가졌다.

이번 행사에는 협력병원 중간관리자 연수교육에 참석한 협력병원 관계자 70여명이 자리를 함께해 의료원 10주년을 축하했다.

의료원발전후원사무국은 교육연구동 건축기금조성 홍보차원에서 기념행사장 입구에서 즉석 발전기금 모금행사를 실시, 현금출연과 후원약정을 통해 총 29명으로부터 5백만원 상당의 후원을 받았다.

비전선포식



아주대학교의료원은 10주년을 기념하여 설립공로상, 근속상, 공로상을 수여했다.

설립공로상은 아주대학교의료원 설립에 큰 기여를 했던 전 김준엽 이사장, 故 김효규 총장, 황종의 상무이사, 前 이성낙 의무부총장, 前 이호영 총장, 前 서정호 의무부총장, 소의영 기획조정실장, 탁승제 교수, 前 강원형 교수, 김용순 교수, 전기홍 교수, 제해성 교수, 최영 행정부원장, 前 최태성 건축부장, 문창형 의과대학장, 임인경 교수, 이영돈 교수 이상 17명에게 순금 명함 5돈의 부상과 함께 수여됐다.

근속상은 마취통증의학교실 이영주 교수를 비롯하여 10년간 근무해온 538명의 교직원에게 수여됐으며 부상으로 금지환 2돈이 지급됐다.

공로상은 총장상, 의료원장상, 의과대학장상, 병원장상으로 구분하여 수여했는데, 총장상은 최영 행정부원장, 박희숙 어린이집 원장, 진단검사의학과 신동희 임상병리사에게 수여됐으며, 의료원장상은 구매관리팀 이상재 팀장 외 6명에게 수여됐다. 총장상과 의료원장상 수상자들에게는 해외연수여행이 부상으로 지급됐다.

의과대학장상은 교학팀 배창욱 외 1명에게 수여됐으며, 병원장상은 호흡기내과 노인숙 외 23명에게 수여됐다. 의과대학장상과 병원장상은 공로패와 상품권이 지급됐다.

단체활동부문의 의료원장상에는 상차관리간호팀과 진료의뢰센터 2팀에게 수여됐다.

이외에 협력업체, 자원봉사자, 종교실 부분으로 나뉜 특별상이 총 47명과 1개의 단체에게 수여됐다.

한편, 의료원은 종교실 손덕식 목사와 아씨의 프란치스코 수녀회에 감사패를 전달했다.



출연섭외로 바빠진 중찬단



우리는 붉은 악마들



신인가수 탄생

역시, 전인권!!

정말, 의사들 만나요?





에이스 사회자





아주대학교의료원 新 종합의료정보시스템 구축

고유기술로 국내 최초의 처방전달시스템(OCS)을 개발, 전 진료과정을 전산화하여 획기적인 업무혁신을 추구해 온 아주대학교의료원은 지난 9월15일 아주홀에서 국내 최고의 선진적 정보시스템으로 거듭나기 위한 신 종합의료정보시스템 구축 사업 착수보고회를 가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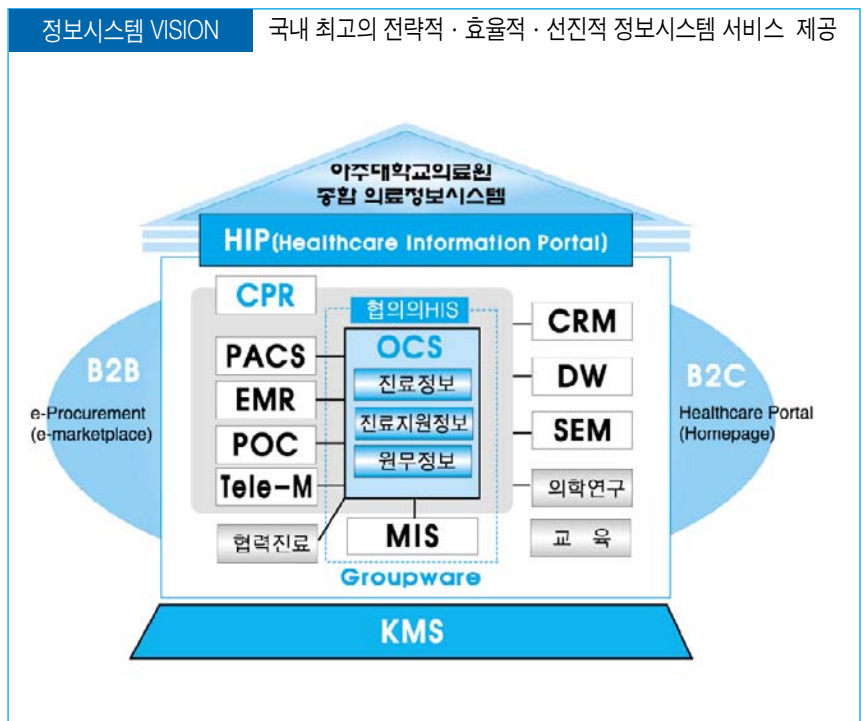
유해로 아주대학교의료원이 개원한 지 10주년이 되었다. 비록 짧은 기간이지만 한 차원 높은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환자에게 제공하기 위한 꾸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1994년 개원 초기부터 최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첨단 의료장비의 도입과 더불어 다방면의 벤치마킹과 각고의 노력 끝에 고유기술로 국내 최초의 Client/Server 방식의 처방전달시스템(OCS : Order Communication System)을 개발하여 환자의 진료예약에서부터 수납, 검사, 진단, 처치 등의 전 진료과정을 전산화하여 획기적인 업무혁신을 추구해왔다. 이는 그 이전의 의료정보시스템에 비하여 수준 높은 시스템으로 인식되어 많은 병원으로부터 관련 직원들이 견학을 오기도 했다.

그러나 해를 거듭하면서 의료제도의 변화와 진료절차의 개선, 정보기술의 변화 등으로 기존의 정보시스템을 지속적으로 변경 보완해야 하는데 기존의 정보시스템 기술 환경에 제약이 있어 시스템 기능의 확장이나 Web과 Mobile 서비스 등 신 정보기술 환경과의 연동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아쉽게도 점차 뒤쳐지는 듯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어 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다.

또한 최근 의료원의 경영환경을 살펴보면 밖으로 국가 의료정책 면에서 의료제도가 다변화하고, 정부 의료재정의 악화로 인한 다양한 통제기능이 강화되고 있으며, 의료시장 개방과 전자무기록 및 원격의료 허용이 법제화되고, 병원간 진료정보 공동활용 등이 추진되고 있다. 국내 병원계에서는 대형병원을 중심으로 한 신설과 증축이 추진되고, 협력병원과의 연계체제를 구축하고, 신기술과 신 의료정보 시스템 도입 및 홍보 강화 등으로 경쟁력을 높여가고 있으며, 경쟁력이 낮은 병원은 도태하는 등의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안으로 원내 경영 현황에서는 의료서비스의 고급화 요구 증가와 인건비 상승 및 수익성 악화 등에 대한 타개책이 필요하고 임상 의학연구 지원에 대한 필요성이 중시되고 있으며, 협력병원과의 유대 강화 및 확대 등의 다양한 요구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은 대부분이 경영을 어렵게 하는 위협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와 같은 어려운 경영환경을 극복하고 앞으로의 10년을 내다보며 세계적 수준의 의료원으로 도약하기 위한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수차례의 설명회, 세미나와 협의조정 과정을 거쳐 2004년 2월 신 종합의료정보시스템 구축 마스터플랜을 수립하여 ▲ 고효율 경영지원을 위한 전략적 시스템 환경 구축 ▲ 사용자 중심의 고품질 정보서비스 기반 강화 ▲ 업무 생산성 제고를 위한 지원 시스템 강화 ▲ 의료제도 변화에 유연한 정보시스템 구축 ▲ 편리하고 선진적인 IT 환경 조성 등을 사업목적으로 설정하고 이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게 되었다.

단계별 사업범위로는 1단계는 기간시스템 재구축 단계로 처방전달시스템(OCS) 재개발, 종합행정시스템(MIS)과 통합 및 PACS와의 연동, 경영정보시스템(EIS) 개발 등의 통합적 병원정보시스템(HIS) 구축과 간호 진료시점관리(POC) 시스템 구축 업무를 포함하고, 2단계는 연과 시스템 확대적용 단계로 정보교환 기간시스템(GW) 도입, 진료·경영분석시스템(DW) 및 전략경영 시스템(SEM) 구축, 진료시점관리(POC) 시스템 및 전자무기록(EMR) 시스템 구축 업무를 포함하며, 3단계는



사업



의료정보화 선도 단계로 고객관리시스템(CRM) 확대, 지식기반(KMS) 시스템, 의학연구(R&D) 시스템, 원격진료시스템 기반 구축 업무를 포함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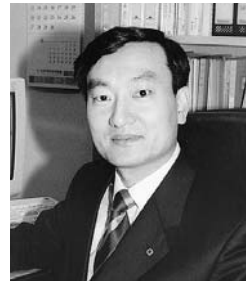
이번에 진행하는 1단계 사업은 삼성 SDS(주)에서 담당하여 2004년 9월1일부터 2005년 12월까지 약 16개월 동안 수행할 예정이며, 부가적으로 그룹웨어 구축과 홈페이지 통합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본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삼성 SDS(주)의 개발조직과 협력하는 사업추진 Task Force 조직을 운영하고 있으며 기존 정보자문교수회의의 자문기능과 함께 사업진행관리와 주요 의사결정을 수행하는 정보화추진위원회, 업무별 요구사항을 수렴 반영하고 결과물 확인, 기초 자료작성 등을 수행하는 정보화실무위원회, 진료부문의 임상과별 의견 수렴을 위한 자문 Staff, 사업진행 및 표준화 지원을 수행하는 정보화추진사무국으로 구성하고 정보화자문교수회의의 자문을 받고 있다. 대우정보시스템(주)의 운영 인력은 기존 시스템의 운영과 신 시스템 구축 및 Data Migration 지원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이러한 정보시스템의 구축을 통하여 고객만족을 최우선으로 진료의 질적 향상과 업무의 효율성 및 생산성을 제고하고 의료원의 자원을 보다 효과적으로 관리, 운영할 수 있게 되리라 기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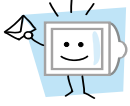
사업착수 전에는 걱정과 설레임이 있었으나 실제로 사업이 착수되고

정보화실무위원회를 주관하여 회의나 견학 등을 진행하면서 기관장의 적극적 지원 의지와 실무위원들과 임상과의 자문 Staff들의 높은 참여도와 열의를 보면서 걱정보다는 자신감으로 바뀌었으며 보다 좋은 결과를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해 본다.

이번 사업의 성패는 경영층을 비롯한 조직구성원의 관심과 참여에 크게 좌우되리라 생각하며, 본 사업에 직접 참여하고 있는 TF 조직 위원들 뿐만 아니라 의료원의 모든 교직원들이 합심하여 다가오는 10년을 준비하는 새로운 선진형 정보시스템을 만들어가는데 열과 성의를 다하여 동참하여 주시기를 바란다.



홍명렬 팀장 / 정보관리팀



간호사님의 주사는 하나도 안봤어요!



나는 신부전증 환자로 11년 전 연세대 의대 세브란스병원에서 9남매 중 7번째 여동생으로부터 장기증의 은혜를 입어 신장이식 수술을 받았다. 신장이식의 권위자인 박기일 선생님의 세심한 치료를 받아 잘 관리했으나, 신부전증의 원인인 고혈압을 다스리지 못해 6년 만에 이식한 신장도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

복막투석을 하기 위한 수술을 하고 복막투석을 하였으나 나에게 또다른 시련이 닥쳐왔다. 다른 사람에게는 흔하게 발생되지 않는 복막투석액이 횡경막에 역류한 것이다. 인공호흡기에 의해 호흡하는 상태에서 등에 꼽은 주사기를 통해 링겔병 한가득 복수를 뽑아 내고서야 혈액투석을 할 수 있었다.

혈액투석이란 동맥과 정맥의 혈관을 수술로 확장시켜 주사기로 혈관에 연결해 3 시간 반 내지 4시간 동안 피를 뽑아 투석기에서 피 속에 섞여 있는 요독분을 제거하고, 제거된 혈액을 다시 주입하는 일로 일주일에 2~3회 실시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주사기를 혈관에 연결하는 일은 환자들에게 매 번 하는 일치고는 참기 어려운 일이다. 이 때 주사기는 확장된 혈관에 맞도록 큰 바늘을 사용한다.

2003년 7월 아주대학교병원에서 재 이식수술을 받아 현재는 건강하게 생활하고 있지만, 내게는 지난 3년간 혈액투석을 위해 직장처럼 출근했던 아주대학교병원 인공신장실을 생각하면 떠오르는 고마운 분이 있다. 2000년 하반기부터 2003년 6월말까지 3년 동안(1년 52회×주 3회×3년=468회) 투석을 도와주셨던 인공신장실의 안경자 간호사님.

내 기억 속, 안경자 간호사님은 진정한 친절과 상냥한 미소로 환자들의 굳은 마음을 풀어 주기 위해 항상 노력하는 분이다. 주사기 연결 때에도 바늘을 뉘여서 살짝 꼽아 남달리 통증을 덜 느끼도록 배려했다. 「백의의 천사」 간호사님들은 인공신장실을 찾는 환자 모두에게 고마운 마음을 갖게 했다.

우리 모두는 언젠가는 나이 들고, 병들어 환자의 고통을 벗어 날 수 가 없을 것이다. 이 때 간호사의 「할머니 약손」과 같은 손길을 받게 된다. 간호사들의 희생정신이야말로 박애정신의 표상이 아닐런지... 음지에서 묵묵히 일하고 있는 이 분들에게 힘을 실어 드릴 수 있는 박수를 보낸다.

이 광 규 님 /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거주



참된 의사의 모습을 배웠어요

올해 여름, 나는 아주대학교의료원의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었다. 교환학생으로서, 소아과 김성환 교수님의 지도 아래 소아 신경학 분야 의사 선생님들을 그림자처럼 따라 다녔다. 본과 1학년으로 임상에서의 경험이 적었던 나는 매일 매일의 병원 일정에 익숙하지 않아 처음에는 조금 당황스럽기도 했다. 또한 신경학적으로 이상이 있는 환아들을 돌보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었다. 그러나 의사와 환자 그리고 보호자가 서로 믿고 의지하는 것을 보며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고, 무엇보다도 의사들이 환자 및 보호자들과 함께 괴로워하고 성실하게 대하는 모습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



▲ 지도교수인 소아과 김성환 과장의 병동 회진에 동참해 진료를 돕고 있는 Susan Shin 학생

소아 신경학 분야에서의 임상 경험은 의사의 삶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를 다시금 깨닫게 했다. 내가 만난 의사 선생님들은 쉴 새도 없이

환자의 사례와 관련된 질병을 공부하거나 검사결과를 분석하고 환자의 요구를 들어주기 위해 항상 정신없이 움직이고 있었다. 그런 와중에도 항상 웃는 얼굴로 나를 가르치고, 내가 묻는 질문에 답해 주었다. 그렇게 훌륭한 선생님을 만날 수 있었던 것에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하고 있다.

나는 김성환 교수님의 연구실에서도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됐다. 미국에서도 실험실에서 일해 본 적이 있기에, 아주대학교의료원에서 연구실을 경험할 수 있게 된 것에 매우 흥분되었다. 나는 실험실에서 물질 대사에 관여하는 미토콘드리아 장애를 분석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었다. 실험실 선생님은 나에게 분석에 이용되는 도구의 사용방법을 매우 열성적으로 가르쳐 주셨다. 아주대학교의료원에서 행해지는 최첨단 연구는 참 인상적이었다.

한국의 의료시스템은 매우 우수하고, 미국과 상당히 비슷해 보였다. 그러나 몇몇 의사 선생님들은 한국의 의료시스템이 아직도 너무 열악하다고 얘기하곤 했다. 하지만 난 연구실에서 기계가 모든 것을 바쳐 최선을 다하는 연구진들과 유능하고 헌신적인 의사 선생님들의 무궁무진한 잠재력을 보았기에 앞으로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되었다.

한국에서 멋진 경험을 만들어 준 아주대학교의료원의 훌륭한 선생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싶다. 아직 배울 게 너무 많지만,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시간이었다. 아주대학교의료원에서의 소중한 시간을 바탕으로, 최고의 의사가 되기 위해 열심히 공부할 것이다.



Susan Shin / 제2기 스토니브룩대 교환학생



투석환자를 위한 신장이식 정보 제공을 위한 자리

아주대학교병원은 신부전으로 복막 또는 혈액투석을 하며 생활하는 환자에게 신장이식에 대한 상식과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오는 10월31일(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아주대학교병원 지하 1층 아주홀에서 신장이식 설명회를 개최한다.

투석 환자 뿐 아니라 환자의 가족, 관심있는 일반인도 참석할 수 있는 개방된 설명회로 신장이식의 관한 전반적인 사항이 다루어지게 된다.

투석과 이식을 비교하는 신장내과 김흥수 교수의 강연에 이어 신장이식의 절차와 경제적 측면에 대한 설명이 진행된다. 가족 또는 친지 중에 신장기증자가 없는 환자를 위하여 뇌사자의 신장이식을 위해 현재 이식 대기자의 현황과 우리나라의 장기 분배 제도의 향후 전망에 대한 설명이 있을 예정이다. 또한 아주대학교병원에서 신장이식 수술을 받고 생활하는 환자의 경험담을 듣는 시간과 가족의 신장이식을 위해 신장을 기증하고 활발히 활동하는 분의 신장기증에 대한 경험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

신장이식 설명회는 현재 투석을 하며 생활하는 환자나 신장 기능이 저하되어 평생 투석을 하게 될 환자에게 생활에 편리한 신장 이식 수술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막연한 불안감을 해소하며, 이식에 대한 희망을 제공하고자 한다.

환자와 가족이 모두 참여하여 이식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보다 양질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자리이다.

아주대학교병원은 항상 환자의 삶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부단한 노력으로 최선의 진료를 실시, 최고의 치료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고 있다. 신부전 환자에게 최선의 치료인 신장이식에 대한 정확한 지식과정보와 지식으로 새로운 삶의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



투석환자를 위한 신장이식 설명회

- ▶ 일시 : 2004년 10월31일(일) 오후 2시~4시
- ▶ 장소 : 아주대학교병원 지하 1층 아주홀

14:00~14:15	인사말
14:15~14:30	투석과 이식
14:30~14:45	이식의 절차 및 경제성
14:45~15:00	이식 대기자 현황 및 전망
15:00~15:15	이식 후 생활
15:15~15:30	신장 기증
15:30~16:00	질문

제 몸을 나누어 또 다른 생명을 만드는 장기기증은 세상의 가장 값진 사랑입니다. 가슴시리도록 고귀한 이 사랑을 베푸는 당신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장기이식 TFT · 장기이식코디네이터 문의전화 031-219-5547 | 016-9277-5376



아가폐적 사랑을 실현해 가는 안성성모병원

개원 10주년의 안성성모병원

아가폐적 사랑을 실현하고, 청순하며 깨끗한 이미지로 예향을 계승하면서 지역성을 탈피하기 위해 성모병원이라 칭한 안성성모 병원은 환자위주의 병원이 되겠다는 신념과 최고의 진료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포부를 실어 1994년 4월2일 경기도 안성시 서인동에 개원하였다.

이러한 신념과 포부는 개원 후 꾸준히 결실을 맺어 진료과목이 10여 개로 늘어나는 등의 양적인 성장 이외에 질적인 면에서도 크게 성장하여 안성지역 최고의 중심 의료기관으로서 우뚝서고 있으며, 아주대학교병원과는 2002년 8월 협력관계를 맺고 꾸준한 교류를 이어가고 있다. 현재는 지상8층, 지하3층 규모에 118병상을 보유하고 FULL PACS 및 EMR을 갖춘 현대화된 첨단 병원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각종 사업으로 사랑을 실현하며...

안성성모병원은 사랑을 실현하는 각종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매월 첫째주, 셋째주 목요일 오후에는 독거노인 및 거동이 불편한 환자를 대상으로 무료로 방문간호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매월 둘째, 넷째주 일요일에는 외국인 근로자 무료진료사업을 펼치고 있다. 또한 매년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과 협의하여 안성 관내 검진 대상자 명단을 확보하여 구역별로 출장 검진하는 무료 성인병검진 사업도 꾸준히 추진하고 있다.



▲ 안성성모병원 전경

그밖에도 안성시 소재 4개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가정형편은 어렵지만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모범이 되는 학생을 선발하여 장학금을 지급하는 사업도 펼치고 있다. 이렇게 안성성모병원은 병원 밖에서도 사랑의 실현에 앞장서고 있다.



▲ 성요셉병원 조감도

제2병원인 성요셉병원의 개원...

안성성모병원은 개원10주년을 맞이하는 올해 안성시 당왕동에 제2병원인 성요셉병원의 개원을 눈 앞에 두고 있다. 안성지역에도 선진국형 의료시스템인 요양병원 설립이 시급함을 인지하고, 장애를 가진 환자와 중풍환자 그리고 보호자의 간병이 어려운 환자들을 위한 장기치료와 재활치료를 위한 사회복지 차원에서 추진된 성요셉병원은 오는 10월30일 개원을 앞두고 있으며 신경과, 내과, 재활의학과를 갖추고 입원환자 180명이 장기요양 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환자중심으로 모든 시스템과 프로그램을 설계하였고 특히 간병인이나 호스피스와 달리 체계적인 간병인 교육을 받고 간단한 의학 지식까지 교육받은 전문인으로 구성된 케어엔젤 서비스를 도입하여 환자와 보호자에게 큰 신뢰감을 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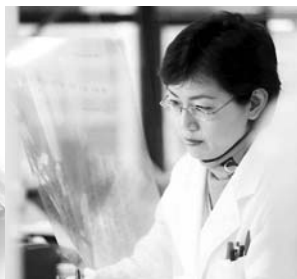
또한 신속한 진료체계와 24시간 간병, 전문의료진 대기로 어떠한 응급상황에서도 정상적인 진료를 받을 수 있고 모병원인 안성성모병원과의 의료네트워크를 통해 보다 신속하게 수준높은 의료 서비스 제공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쾌적한 환경, 대자연의 푸르름을 맘껏 느낄 수 있는 풍요로운 주변환경과 환자의 동선과 이동성을 고려한 병원내 모든 시설과 쾌적한 환경은 환자의 정서적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다. 제2병원으로 지역사회 의료발전에 한층 더 매진하는 안성성모병원의 더 큰 발전을 기대해본다.

김 영 배 팀장 / QITM

최고의 의학명문 아주대학교의료원을 여러분이 키웁니다.
아주대학교의료원 발전을 위한 자리에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 주십시오.

아주대학교의료원 교육·연구동 건축기금 조성

창의력이 있는 의과대학, 질병 연구와 치료의 흐름을 선도하고자 하는 저희 아주대학교의료원의 의지를 더욱 견고하게 만들어 주실 여러분의 도움을 기다립니다.
신설되는 교육·연구동에는 첨단 연구시설과 인력이 집중되면서 정보 교류와 협력, 시설의 공유를 통해 역량을 극대화하여 아주대학교의료원 연구의 중심체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이런 발전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여러분의 관심과 후원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아주대학교의료원 교육·연구동

▶▶총계

■ 우리 모두 후원자가 될 수 있습니다.

국내 의학발전과 최고의 의료서비스를 원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후원자가 되어 주십시오. 저희를 믿고 후원해 주시는 모든 분들의 뜻을 받들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다양한 형태로 도와주실 수 있습니다.

현금, 주식, 기타 자산이나 의료기기, 부동산, 귀중품 등 어떠한 형태로도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시간과 관심도 좋은 후원이 됩니다.

■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도와주십시오.

- | | | |
|----------|------|-------------------|
| • 지로납입 | 전화신청 | 031-219-4000 |
| • 자동이체 | 거래은행 | 신청 후 후원회에 전화통보 |
| • 무통장 입금 | 거래은행 | 예금주 : 아주대학교의료원 |
| | 제일은행 | 692-20-164295 |
| | 제일은행 | 692-20-166907 |
| | 한미은행 | 542-00896-248 |
| | 농협 | 116-01-060243 |
| | 국민은행 | 593501-01-082841 |
| | 우리은행 | 177-089499-13-102 |

저희를 믿고 후원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뜻을 받들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건축기금 모금 현황

구 분	회원수	약정액	기부총액
월 간	12명	9,510,000원	3,510,000원
누 계	372명	1,890,975,531원	1,852,918,161원

성 명	약정액	의료원과 관계
-----	-----	---------

<의료원 납입분>

갈렙애크퍼니	2,000,000	대표 박기준
강 지 윤	1,000,000	동문
김 남 초	5,000,000	의학부 2년 박지웅 학부모
김 재 일	1,000,000	신경외과학교실 교원(현장약정)
동 우SM(주)	500,000	대표 송경섭(현장현금출연)
문 찬 경	10,000	학부모(현장현금출연)
아 라 코(주)	1,000,000	대표 정순석(현장약정)
윤 학 근	1,500,000	사업운영팀 팀장(현장약정)
이 창 준	500,000	진단검사의학과
의료기술부서직원회	5,000,000	
주 동 천	100,000	총무팀(현장약정)
	100,000	교내후원(무기명)
	500,000	교내후원(현장약정)
현장모금	260,000	22명 현장 출연금
10층 서병동	500,000	아주페스티벌 장기자랑 입상금
교직원 분납분	3,059,000	(교직원 급여 공제)

(가나다순)
2004. 8. 28~9. 24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아주난청센터, 제2회 인공와우 캠프 개최



아주대병원 아주난청센터는 10월2일 토요일 오후 1시 아주대 학교 체육관 뒤 잔디밭에서 제2회 인공와우 캠프를 개최했다.

이날 캠프에는 인공달팽이관 이식술을 받은 환자 및 가족, 의료진 등 150여 명이 참석하여 레크리에이션 및 가족모임을 통해 친목도모 및 화합의 시간을 가졌다.

천식 및 알레르기환자 건강걷기 대회 개최 안내
- 알레르기·류마티스내과 -

아주대병원 알레르기·류마티스내과는 천식 및 알레르기 환자와 그 가족,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천식 및 알레르기 환자 건강걷기 대회」를 한다.

「천식 및 알레르기 환자 건강걷기 대회」는 오는 10월16일 토요일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아주대학교병원 잔디 및 주변 동산 일대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 참가 접수 및 문의 전화 : 031-219-5902

셔틀버스 운행 노선

병원 현관 → 아주대학교 정문(글사랑 서점) → 동양부페(우리은행) → 미소지움아파트 → 동수원사거리 삼성생명 → 동수원사거리 조흥은행 → 호텔캐슬 건너편 이화약국 → TG삼보컴퓨터(아주대 삼거리) → 국토지리정보원(팔각정 갈비 옆) → 병원 현관

평일 오전 8:30~ 오후 4:30(운행간격 : 30분)
토요일 · 공휴일은 운행 안함

▶릭! 아주대학교병원 홈페이지



또 다른 즐거움이 있는 곳

www.ajoumc.or.kr

진료과명 진료시간	의사명	진료시간 진료요일	오 전	오 후	세부진공	비고
관절염 4310	강신영	5818		월	수부 및 상지외과	
	남등훈	5902		화	류마티스 관절염, 무릎	
	서창희	5818	화	월, 수, 금	류마티스 관절염, 무릎, 통풍	
	민병현	5543		수	슬관절 및 견관절외과	
	전창훈	5542	화		척추외과	
	원애연	5542	월		인공관절외과	
	한경진	5543	목		수부 및 상지외과	
김현정	5543	수		발목 및 발의 질환		

진료과명 진료시간	의사명	진료시간 진료요일	오 전	오 후	세부진공	비고
유전학 클리닉 5979	김현주	5903	화, 목	수	각종 유전질환, 유전성 암질환	
	김현주	5903	화, 목	수	유전상담	
통증 클리닉 5896	김찬	4331	월, 수, 금		삼차신경통, 디스크, 수족발증, 대상포진후 신경통	
	한경림	4331	해외연수중		경부·요부 디스크, 요실금, 두통, 교감신경위축증	
	일본진로	4332	월, 화, 목, 금		경부·요부 디스크, 요실금 등 암성통증 기타	
유방 클리닉 4744	김명옥	4743		월	유방질환, 난치성 소화기 질환	★
	정웅식	4743	월, 화, 목*	목	유방질환	★
	윤태일	4743	수, 금, 목*		유방질환, 내분비 질환	★
					*은 밤포름 시술만 시행	
학습 비장애 클리닉 5814	신윤미	5814		화	소아·청소년 정신과, 발달장애	
	조선미	5814	금, 토(격주)	수, 금	심리검사프로그램	

전 문 클 리 닉 명	의사명	진료시간 진료요일	오 전	오 후	비고
소화기 내과	간 암 클 리 닉 5976	조성원 정재연 왕희정 원제현	5969 5963 5753 5863	월, 화, 목 금 금 해외연수중	 화, 수, 목 화, 금
	순환기 내과	심부전 및 관막질환 클리닉 5717	신준한	5973	화
	호흡기 내과	여행자 예방접종 클리닉 4730	최영화	4730	월, 목 수
	알레르기 류마티스 내과	발독(곤충독) 알레르기클리닉 5902	박해심 남동호	5905 5905	월, 금 화
정신과	공황장애 인지행동 치료클리닉 5814	임기영	5810	화	목(19:00~21:00)
피부과	안면 색소 클리닉 5917	강희영	5914	수, 금	월, 수(레이저치료) 목
흉부외과	하지 정맥 류 클리닉 5752	최 호	5752	화, 목	화
신경외과	뇌졸중 혈관내 수술클리닉 5664	신웅삼 김선용	5664 5858	해외연수중 수	
성형외과	구순 구개 열 클리닉 5614	박명철	5611	수	
	안면 윤곽 미용클리닉 5614	정재호	5612	화, 목	금
신부인과	불임 및 습관성 유산클리닉 5597	황경주 김미란	5597 5597	월, 수, 금 화, 목	월 화, 목
안과	콘택트렌즈 클리닉 5673	양홍석	5671		화, 금
	움직이는 의안 클리닉 5673	문상호	5670		화(2주, 4주)
비뇨기과	요실금 클리닉 5585	최중보	5587	화, 금	수
	야뇨증 클리닉 5585	김영수	5586	수	금
가정의학과	비만 클리닉 5959	김범택	5957	월, 수, 목	금
치과	인공치아 이식클리닉 5869	이정근 고석민	5869 5869	화, 목, 금	★
	턱관절장애 클리닉 5869	송승일	5869	수	★

아주대학교병원 외래진료 시간표

<2004년10월1일 현재>

아주대학교병원은 토요일에도 특진 의사가 진료를 합니다

진료과명	의사명	진료시간	오전	오후	세부진공	비고
소화기내과	조성원	5969	월, 화, 목		간질환	
	김진홍	5962	화, 금	수	위장관치료내시경, 췌·담도질환	
	함기백	5963	월, 목	화	위장질환	
	이광재	5963	화, 금	목	위장질환, 위장관 기능장애	
	유병무	5962	월, 수	금	췌·담도질환, 치료내시경	
	이기명	5963	수	월, 수	위장 질환, 대장질환	
	정재연	5962	금	화, 목	간질환	
	심성준		목		소화기질환	
	김중수			월	소화기질환	
	최준혁			금	소화기질환	
순환기내과	탁승재	5973	화, 수	수	관상동맥질환(협심증, 심근경색증), 심장혈관 중재시술	
	신준한	5975	월, 목	화	관막질환, 심근경색, 협심증, 심부전, 고혈압	
	홍교승		목	월, 困	부정맥, 심전기생리검사, 현탁도자절제술, 인공심박동기	
	문영호	5975	화	목, 금	관상동맥질환(협심증, 심근경색증), 심장혈관 중재시술	
	최소연	5975	금	화, 수	관상동맥질환(협심증, 심근경색증), 심장혈관 중재시술	
	최태영	5975	금	월	고혈압, 심장질환	
	최병주	5973	화	수	고혈압, 심장질환	
	유상용		월		심장혈관질환	
	안성균			금	심장혈관질환	
	최정현	5973	수		고혈압, 심장질환	
호흡기내과	홍성철	5967	월, 화, 수, 목, 금	목	폐암, 감염성폐질환, 폐결핵, 만성기침	
	박광주	5967	해외연수중		만성폐질환, 폐암, 폐결핵, 중환자치료학	
	최영화	4731	월, 목	수	발열, 감염질환, 에이즈, 예방접종, 결핵	
	신승수	5968	화, 수	월, 금	만성폐질환, 중환자치료, 폐암, 폐결핵	
	오윤정	5968	월, 수	화, 목	호흡기질환	
	박주현		목, 금	월, 화	만성폐질환, 간질성 폐질환, 중환자치료, 폐결핵	
내분비내과	이관우		월, 수, 금	목	당뇨병, 내분비대사질환	
	정운석	5961	화, 목	월, 금	골다공증, 뇌하수체질환	
	김대중	5955	월, 화, 목	수	당뇨병, 비만, 대사증후군, 갑상선질환	
	일본진료	5961	수, 금	화	내분비대사질환(계진간 진료)	
신장내과	김흥수	4741	월, 화, 수, 목, 금		만성신부전증, 투석치료, 사구체신염	
	신규태	5971	화, 목, 수, 목	월	신장이식, 고혈압, 사구체신염	
	정희준			화, 목	신장질환	
	송영수			수, 금	신장질환	
장양내과	김효철	5992	수, 금		림프종, 골수종, 백혈병, 혈액질환, 조혈모세포이식	
	임호영	5991	월, 화, 목		식도·위장·대장·직장암, 각종 고형암	
	최진희	5994	수, 금	월	두경부·식도·폐암, 유방암, 각종 고형암	
	박준성	5992	월, 화	화, 목	혈액질환, 종양	
	장준호	5990	목	월, 수, 금	혈액학	★
	일본진료			화, 수, 목, 금	각종 암 및 혈액질환	
알레르기·류마티스내과	박혜심	5905	수, 목, 금	수	천식, 알레르기질환	
	남동호	5905	화	화*, 목, 금	천식, 알레르기질환, 류마티스, 루푸스, 통풍	
	서창희	5818	화*	월, 수*, 금*	류마티스질환, 류프스, 통풍	
	김상하	5905	목	화	기관지천식, 알레르기질환	
	일본진료			월	천식, 알레르기질환	
내과일반	5970	월~금	월~금		*는 관절염센터 진료	

진료과명	의사명	진료시간	오전	오후	세부진공	비고	
소아과	홍창호	5620		수, 금	청소년 질환, 성장과 발달		
	김성현	5616	화, 목, 금	困	신경계질환, 간질, 발달지체		
	배기수	5623	월, 화, 목	목	신장질환		
	이수영	5623	수, 목	困, 화	알레르기, 호흡기질환		
	박문성	5617	월, 수	困, 금	미숙아, 신생아질환		
	정조원	5621	困, 금	월	심장질환		
	황진순		월	困, 困, 금	소아내분비 및 유전대사 질환		
	박준은		화, 困	困, 목	소아혈액·종양질환		
	석호정		월, 화	월, 금	소아일반질환, 알레르기·내분비질환		
	유재은		금	화	소아일반질환, 신생아질환		
신경과	김연희		수	목	소아일반질환, 신경계질환		
	일본진료		목	수			
	토요일은 특진1명, 일반 1명의 의사가 주마다 교대로 진료를 합니다.						
	허균	5659	화, 수	월, 목	간질, 치매, 뇌혈관질환		
	주인수	5653	화, 목	월, 금	뇌졸중, 척수, 근육 및 말초신경질환		
	방오영	5657	월, 금	화, 수	뇌졸중, 치매		
	이필휘	5657	월, 목	화, 수	뇌졸중, 파킨슨병, 운동장애		
	일본진료	5657	수, 금	목, 금	신경계질환		
	정신과	정영기	5811	월, 수, 금	화	우울증, 스트레스 관련 장애	
		임기영	5810	화	수, 금	불안장애 및 스트레스 관련 장애	
이영문		5810	목, 금	월, 목	정신분열의 재활치료, 우울증		
노재성		5811	수, 목	월, 금	우울증, 조울증 및 신경성 신장장애		
신윤미		5812	월, 금	화, 목, 목, 금	학습장애,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 틱, 자폐인양장애		
일본진료			화	화, 목			
피부과	이은소	5912	월, 화, 목	困(예약), 수	건선, 여드름, 배제트병(화:레이저치료)		
	김유찬		월, 화, 목	화, 困(예약)	피부종양, 화학박피술(금:레이저치료)		
	강희영	5914	수, 금	월, 困(예약), 목	백반증, 무좀, 침묵피부염 (수:레이저치료) 색소질환		
	이지연			월, 困(예약), 금	색소성 질환 (목:레이저치료)		
외과	레이저치료			화, 수, 목, 금	예약에 의함		
	일본진료	5913	월~금	월~금			
	김명욱	5761	월, 수		난치성 소화기(위, 담도, 췌장)질환		
	조용관	5756	화	화, 수	식도, 위장질환		
외과	소의영	5756	수, 금		내분비 질환, 두경부 질환		
	홍정	5754	화, 목		소아외과 질환(기형, 종양, 탈장, 배변기능장애)		
	왕희정	5753	금	화, 금	간암, 간내결석, 간이식, 담도		
	서광옥	5753	월(재진)	월(초진), 목	대장·직장·항문 질환		
	오창권	5756	월, 금	월, 금	장기이식외과, 혈관외과		
	김옥환	5756	화, 목		간·담도·췌장 질환		
	한상욱	5754	금	월, 금	위·십이지장 질환, 복강경위수술		
	정용식		유방클리닉 진료		유방질환		
	이국종	5753	목		외상외과	★	
	윤태일		유방클리닉 진료		유방질환		
외과	김홍		수, 목		위십이지장 질환, 급성복통		
	정인호		수		담도계 질환, 복강경 수술		
	김봉완		화, 금		간암 간내결석, 간이식, 담도, 급성복통		
	안상익		수		두경부 질환, 유방질환		

외래진료 접수시간 * 평 일 오전 8:00~오후 4:00
* 토요일 오전 8:00~오후 11:30

아주대학교병원
주요 전화번호 안내

- 대표전화 : (031) 219-5114
219-6114
- F A X : (031) 216-6656
- 전화예약 : (031) 219-5451

진료과	의사명	진료시간	오전	오후	세부전공	비고
흉부외과	이철주	5749	금	화, 금	성인심장혈관외과	
	소동문	5750	월, 수	월	소아심장혈관외과	
	최 호	5750	화	화, 목	폐·식도외과, 다한증, 하지정맥류	
	이상수	5750		월, 수	폐·식도외과	
5717	일반진료	5750	목			
정형외과	강신영	5544		월*, 목	수부 및 상지외과, 기형, 미세수술외과	
	민병현	5543	월, 금(초진)	수*	슬관절 및 건관절외과	
	전창훈	5542	화*, 목, 금		척추외과, 족관절, 최소침습수술	
	원예연	5542	월, 수	목	인공관절외과	
	한경진	5543	목	월, 화	수부 및 상지외과, 미세수술외과, 사지혈관신경외과	
	김현정	5542	수*	화, 목	발목 및 발의 질환	
	전영수		월, 금	금	골연부조직 종양 및 외상학	
	조재호			월, 수, 금	소아정형(변형)교정, 기늘리는 수술, 외상	
	정남수			금	정형외과 질환, 외상학(탈구 및 골절)	
	박응석	목			정형외과 질환, 외상학(탈구 및 골절)	
노정호	수			정형외과 질환, 외상학(탈구 및 골절)		
신경외과	조경기	5661	월, 목	목	뇌종양, 척추질환	
	조기흥	5662	수	월, 수	척추질환, 신경통증치료	
	윤수현	5662	화, 금	화	소아신경외과, 뇌종양	
	안영환	5662	화, 금	금	안면경련증, 삼차신경통, 방사선수술, 뇌종양	
	신용삼	5663	해외연수중		뇌혈관 질환, 뇌졸중, 중재적 치료	
	김세혁	수	수, 금		뇌종양, 뇌혈관 질환, 외상	
	신숙영	월	목		뇌종양, 외상, 일반 신경외과	
허지순	5663	목	월	척추질환, 외상, 일반 신경외과		
성형외과	박명철	5611	월, 수, 금		유방성형, 소아기형, 미용성형	
	정재호	5612	화, 목	금	악안면부성형, 미용성형, 악안면부기형	
	박동하	토	월, 목		수부성형, 미용성형	
	정수우		화, 수		미용성형, 체형성형(비만)	
5614	일반진료	월-금	월-금			
산부인과	오기석	5595	화, 목, 금		부인과 질환	
	유희석	5594	화, 목	월	부인암	
	김행수	5593	월, 목, 금	화, 금	고위험산모, 초음파 (특수진료·예약에 한함)	★
	장기흥	5594	금	화, 수, 금	부인암, 복강경	
	양정인	5593	목, 수, 금	목	고위험산모, 초음파 (특수진료·예약에 한함)	★
	황경주	5643	월, 수, 금	월	불임, 습관성 유산, 복강경	
	이정필	5595	월, 수	수, 목	부인암, 비뇨부인과, 복강경	
	김미련	5643	화, 목	화, 목	불임, 복강경, 미혼여성클리닉	
	5597	일반진료	월-금	월, 수, 목, 금		
	안과	유호민	5669	월, 수, 금	목(예약), 목(예약)	망막, 유리체, 백내장
안재홍		5672	월, 화	금	녹내장, 백내장, 굴절수술	
문상호		5670	금	화, 목	안성형, 백내장	
장윤희		5672	목	월, 목	사시, 소아안과	
양홍석			화, 금		각막, 백내장, 외안부, 렌즈클리닉	
문찬식		화, 수(레이저 치료)	수, 금(레이저 치료)		망막, 백내장, 유리체	
5673		일반진료	월-금	월-금		
이비후과	박기현	5742	월, 금		난청, 어지럼증, 귀종양 및 두개저외과	
	문성규	5742	해외연수중		중이염, 난청(유전성 난청), 인공와우, 보청기	
	정연훈	5742	화(신생물과내, 목(이비정)	금	난청, 어지럼증, 인공와우, 귀종양	
	김철호	5746	월, 목	수(신생물과내)	두경부 종양, 음성장애, 기관·식도 질환	
	김현준	5746	수, 금	화	비염, 부비동염, 후각장애	
	오정훈	수	월, 목		비염, 부비동염	
	5747	김병철	화	수, 금	비염, 부비동염	★
이준호		월, 화, 목		난청, 중이질환		
일반진료	월-금	월-금				

진료과	의사명	진료시간	오전	오후	세부전공	비고	
비뇨기과	김영수	5586	수	금	소아비뇨, 여성 방광염		
	김세중	5587	월, 화	목	비뇨기 종양(암)		
	안현수	5588	목	월, 화	요로결석, 불임		
	5585	최종보	5587	화, 금	수	배뇨장애, 요실금, 남성과학(성기능장애)	
	오동근	수, 목	월		남성과학, 요로결석, 요실금		
	강지훈	월	화, 금		비뇨기 종양(암)		
일반진료	금	수, 목					
재활의학과	이일영	5795	월, 수, 금		척추손상		
	나은우	5796	수, 목	화, 금	뇌졸중, 뇌손상, 절단사 재활		
	5802	임신영	6440	화	월, 수, 금	소아 재활, 학습장애, 언어발달장애	
	윤승현	월, 금	화, 수, 목	목	노인 재활, 근골격계 재활, 스포츠 손상 재활		
일반진료	화	목					
지반사상과	김선용	5854	월, 화, 목		뇌혈관 질환 중재적 치료		
	원재환	5863	해외연수중		혈액순환장애, 뇌혈관, 허파혈액순환		
	5823	일반진료	5145	수, 금	화, 목		
방사선종양학과	전미선	5884	월-금	월-금	종양(부인과, 유방암, 소화기암)		
	오영택	5884	월-금	월-금	종양(두경부, 폐종양, 비뇨기암)		
	5884	강승희	5884	해외연수중	종양(뇌종양, 육종, 경위방사선치료)		
핵의학과	윤서남	5947	월-금	월-금	핵의학(진단, 동위원소치료)		
	5933	윤준기	5947	월-금	월-금	핵의학(진단, 동위원소치료)	
신안면역과	이경중	5645		화	직업성 질환, 직업성 인간공학		
	5644	박재범	5295		목	직업성 질환	
	5606	일반진료	5644		월-금	직업성 질환	
가정의학과	김광민	5958	월, 수, 금	화	만성폐로, 노화관리, 남성갱년기		
	박재철	5957	화, 금	월, 수	여성갱년기, 스트레스, 가족상담		
	5953	김범택	월, 수, 목	금	비만, 골다공증		
	안병훈	화	목		비만, 갱년기, 골다공증		
	정재훈	목	월		갱년기, 골다공증		
일반진료	4808	월-금	월-금				
치과	이정근	5869	월, 화*, 수, 목*	화*, 수*, 목*	악안면기형(주걱턱), 임플란트	★	
	고석민	5869	월*, 화, 금*	월, 수, 금*	인공치아보철, 심미보철, 잇몸질환	★	
	5869	유성근	수*, 목	월, 수, 목, 금	치열교정, 악안면기형	★	
	송승일	5869	화*, 수*, 목*, 금*	화*, 목*	턱관절 장애, 임플란트	★	
	5869	신혜진	월*, 화*, 목, 금	월*, 목, 금	심미수복, 신경치료, 치아미백	★	
	5869	일반진료	월, 화*, 수, 목*, 금	월, 화, 수*, 목*, 금	화, 목, 오후는 초진 가능 *는 별도 예약	★	

토요일 특진운영 안내

토요일 외래진료는 주마다 특진 의사가 바뀔 수 있으나 세부전공과 관련없이 모든 질환을 진료합니다.

(10월1일부터 신정과, 정신과, 외과, 재활의학과와 토요일 외래진료 중지)

1. 진료시간표는 각 과별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 는 특수진료입니다.
3. * 는 세부전공만 진료합니다.
4. ■ 은 추가비용징수 선택진료의사입니다.
5. ★ 는 진료시간이 변경된 의사입니다.
6. 전화문의는 031+219+ 해당 진료과의 번호를 누르십시오.